

한인뉴스

2016

3

VOL. 237
haninnews_inni@gmail.com



UNLIMIT

— YOUR STYLE —

WITH PREMIUM METAL & GLASS BODY



SAMSUNG **Galaxy A**

UNLIMIT YOURSELF



Premium Metal & Glass Body - Full Metal Body & 2.5D Glass Design
Advanced Camera - Camera 13MP with LED Flash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h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20	1725	월,목,일	30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0010 ^h	수,토,일	300-200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 각분야 8명의 준비된 강력한 변호사 팀 (변호사 및 U법대 교수진)
- 한인 기업 및 동포의 법적 문제 확실한 해결
- 법인 및 개인 정기 · 개별 상담
 - 민.형사 소송 / 세무.관세 분쟁 / 보세구역 설정 및 해제
 - 기업 법무일체 / 부동산 관련법 / 은행 및 기업파산
 - 투자 및 자본시장 / 전자상거래 / 혼인.이혼 및 국적

김 종성 (대표 Partner) : U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비즈니스법)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8 Fax : 62-21-5207212



"나는 외대부고로 간대!"

세계와 하나되는 외대부고 글로벌캠프

SAT HAFS Global Camp

기간 / 장소 1차캠프: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2016년 6월 19일(일) ~ 7월 15일(금)
 2차캠프: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2016년 7월 10일(일) ~ 8월 5일(금)

대 상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예비 9학년 ~ 예비 12학년)

캠프 프로그램 정규 수업: SAT New Critical Reading, New Math, New Grammar, New Essay Writing
 선택 수업: Math2C, World History 등 Subject 수업 *Subject 선택 수업은 5인 이상 등록시 개설됩니다.
 방과후수업: Book Club, 멘토 특강
 기 타: 답임·부담임 상담, 적성검사 및 적성·진로 상담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자원방법 캠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www.hafsglobalcamp.com
 *홈페이지 이용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2016년 2월 9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외대부고 글로벌 캠프는 전 세계 22개국 한인 학생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쿠웨이트, 멕시코, 인도, 모나코,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르단, 파나마,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집트, 아르헨티나)들이 참가한 캠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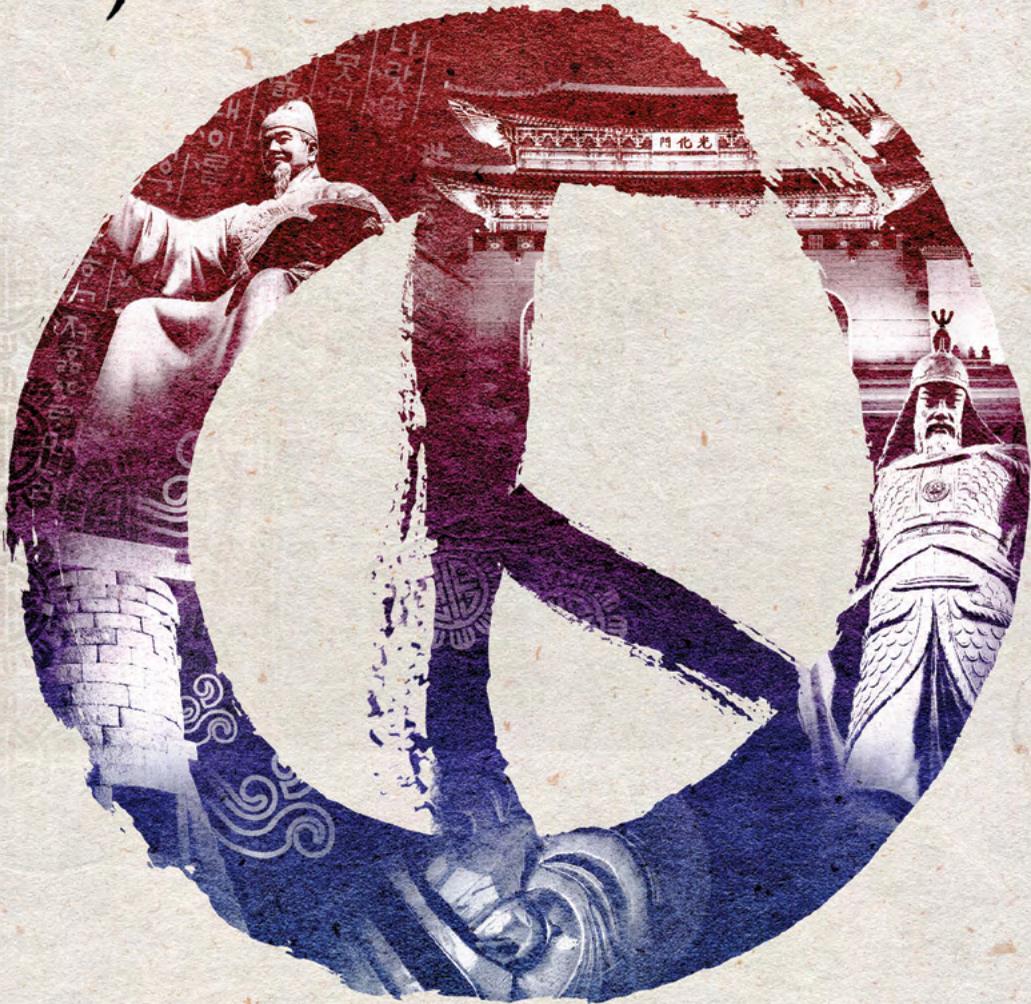
2016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HAFS Global Camp

캠프에 관한 문의는 +82-31-324-0015 / 070-4616-0393
 또는 캠프 이메일 globalcamp@hafhs.kr

외대부고 주요 대입실적 | 예일: 4명, 유엔: 6명, 스탠포드: 3명, 콜롬비아: 7명, 다트머스: 2명, 코넬: 7명, 듀크: 2명, 존스홉킨스: 4명, 프린스턴: 1명, 다수합격(직년: 하버드 3명 외 해외 명문대 다수합격) 올해 서울대 79명 전국 1위 합격자 배출



대한민국을 가슴에 담은 우리모두 유권자입니다



투표기간

2016. 3. 30

2016. 4. 04

매일

08:00 ~ 17:00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준비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소·기간

대사관 1층 대강당(3. 30 ~ 4. 4)

수라바야 한인회관 2층(4. 1 ~ 4. 3)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2016년 3.1절 행사 (자카르타, 롯데 애비뉴)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6

편집위원 칼럼/ 나 하나쯤이야...
<황미리>.....8

신성철 칼럼/
반도의 한국인, 군도의 인도네시아인.....10

이모저모 한인사회.....12

제 97주년 3.1절 기념행사

자신의 상황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외부에 공격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리석다.

그 두려움 탓일까?
우리는 감정을 들키면 하수라고 스스로를 가르쳤나
봅니다.
홍불용설을 검증하듯, 오감의 기능이 저하되어 가는
저를 느낍니다.

살아있는 생물, 일상의 물건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에
당연한 것은 없을텐데...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그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봄날입니다.

“보다 더 잘 보고,
보다 더 잘 듣고,
보다 더 잘 느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수잔 손택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이선진 전대사일기3/ “2006년, 3번 연기된 SYB 한국방문”.....14	BSJ를 소개합니다 <김유범> 재외국민, 바뀐 국내 건강보험 혜택.....40 한국무역협회, 우리은행과 세미나 개최 JIS 소식
2016년 한국문화원 주요 문화행사 2016 BUSINESS DIALOGUE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PHOTO NEWS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도 자화자찬 나들이전 제 1회 코윈 재인니 한글학교개교식 및 입학식	6월의 월간 경제 브리핑.....46 그것이궁금하다<김종성>.....48 지상갤러리/제백석 <김현경>.....50 집중! 이 사람/ 최병우회장.....52 3월의 행복에세이<이동균>.....54 법률해설 <이승민>.....56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허영순>.....58 이달의 추천 BOOK<편집부>.....60 KOTRA 구인, 구직 안내.....64 생활정보.....69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28	
최진열의 경제칼럼/ 2016년 루피아의 특별한 행보.....29	
한인니 문화연구원 소식 선거관리위원회 소식	
열린 한인회, 소통하는 우리.....34	
KOICA 소식 한-인니 전자정부 개소식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편집위원 황미리

요즘 북한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그 외 도발들을 서슴치 않는 북한덕분에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각기 정부뿐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들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

때문에 전세계적 북한 경제 제재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대대적인 북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정부측의 여러가지 제재 중에 당장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식당 출입문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별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북한 식당 출입에 대한 출입자제를 촉구했는데 이는 북한 식당이 있는 나라들의 동포들 사이에 현재 뜨거운 감자다.

북한 식당의 주요 고객은 남한 관광객 그리고 해외 동포다. 북한에 대한 궁금증과 한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조금이라도 동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합쳐져 남한 사람들은 북한식당을 방문해 왔다. 물론 많은 남한 남성들은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호기심 또한 컸을 것이다.

검색엔진에 북한식당을 검색해 보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북한식당을 방문 한 후 김태희 만한 미모의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기사화 되었던 적도 있다. 예전부터 남남북녀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 여성들의 미모를 높이샤 오던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충분히 남자들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출입을 하던 북한식당을 단숨에 공작금 조달 업체로 정하고 출입 자

제를 촉구하는 정부에 대해 몇몇 사람들의 반발심리는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던가 하는 북한에 대한 향수까지 더해진 사람들이라면 북한 식당 출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 약간은 불편함 마음을 내비친다. 이는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수의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남자들끼리 골프를 치고 2차로 북한식당을 자주 드나들던 지인은 북한 식당에 가면 남한여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나긋나긋함이 있어 발을 끊기 힘들다라고 이야기 한다. 독특한 억양의 한국말, 나지막한 목소리와 방으로 들어가면 춤과 노래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 남자들에게겐 뭔가 치유가 되는 듯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측과 여러 단체들에서 출입자제 촉구를 해도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으로 출입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이 우리 조국의 머리위로 미사일을 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연평도나 백령도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총알이 되어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다시 출입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어디 그뿐인가 사실 ‘UN 안보리 결의한 2094’ 에 보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은 단지 밥한끼가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 2094’ 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

요즘 미국에서도 대선 주자 샌더스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 하고 간혹 외골수 정치성향

을 띤 몇몇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어쩌면 사회주의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과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합쳐진 많은 나라들에서의 빈부격차와 빈익빈부익부 상황을 지켜보며 한탄하는 몇몇 젊은 층은 다시 혼란스러워 한다. 특히 본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차라리 북한처럼 사회주의가 마음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주의 아이디어의 시작은 분명 나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함께 잘먹고 잘살자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분명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순수한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 대부분은 변질되었고 특히 북한의 경우는 독재와 다를 것 없는 초기 사회주의 발상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띤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다.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마음들이 합쳐져 아직도 북한 식당을 출입하고 싶다는 동포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북한 식당만큼 자본주의적 성향을 띤 식당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다. 북한은 12개국에서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식당들에서 일하는 소위

“여성 봉사원” 들은 약 2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북한 전지역에서 선별해서 뽑힌 여성들이다.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룰 줄 알고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뽑히고 이후 손님들에게 접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장군님께서 성형수술” 도 해주는 여성들이다. 그렇게 뽑힌 여성들은 해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충성자금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들 여성들은 불쌍한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동포들의 동정심을 살만한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뽑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키워낸 여성들이다.

아름다운 여성 때문이건 마음속 안타까움 때문이건 분명한 건 우리 동포의 감정을 움직여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은 북한 정부의 완벽한 계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화를 벌여야

하는 북한 정부에게 해외의 북한 식당은 그야말로 돈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 돈줄에 힘을 보태지 말자는 것이지 한민족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포에 때문에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 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북한 아이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는 기금에 동참하길 권유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출입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식당을 출입하려면 최소한 평양소주를 마시며 북한 여성들의 노래와 춤을 들으러 가는 것이며 본인들의 돈이 결국 남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쓰여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음식이 맛있어서 간다’, ‘서비스가 좋다’ 등의 이유를 낸다면 그보다 더 음식 맛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곳을 가기를 부탁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발표까지 해가며 출입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굳이 찾아 북한 식당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북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 아니라 남한으로 귀화한 개인이 운영하는 북한의 맛을 내는 식당을 출입하는 것이 어떨까.



호치민 북한식당



반도의 한국인 군도의 인도네시아인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 나라의 국민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에 비유된다. 국민성은 기후와 오랜 역사를 통한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더 나아가 외모로 나타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면하고 정이 많은 한국사람과 느긋하고 인내하는 인도네시아사람.” 여러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국인은 ‘극단 과격 성급 배타적 능동 근면 화끈 명석 집념’ 등으로, 인도네시아인은 ‘표리부동 수동 온순 침착 친절 인내 개방’ 등으로 대비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의 동쪽 끝에 비교적 작은 지역인 한반도에 자리잡은 우리 민족은 중국, 몽골, 만주족,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5천년 동안 3천번 이상의 크고 작은 침략전쟁을 겪으며 민족의 얼과 맥을 이어가고 있다. 1년을 4계절과 24절기로 나누어 근면하게 일하며 농사를 짓고 전통문화를 이어오며 살아왔다. 고려 중기부터는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고 중국을 상전으로 받드는 대신, 한반도 내의 자주와 형식상 독립을 보장 받았다. 중국과 교류가 빈번해지면 결국 소수인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므로, 필요한 외교관계와 무역관계를 제외하고 폐쇄적으로 대외문호를 개방했다.

우리와는 대비되는 바다라는 천혜의 방어막을 갖고 있는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외세로부터 안전해 전쟁의 고초를 겪지 않고 무역품(계절풍)을 이용한 해상무역과 문화교류를 해왔다. “인도네시아는 굶어 죽는 사람과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처럼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섬나라 특유의 기질로 외래문화를 소화하여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꾸어 왔다. 인도의 불교와 힌두 문화를 받아들여 만든 보로부드루 불교사원과 브람바난 힌두사원은 자바문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6세기 후추와 정향 등 금보다 귀한 향신료를 찾아나선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각축장으로 전략하면서 빈곤과 궁핍에 빠졌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한 대륙국가인 중국뿐 아니라 이에 맞선 한국은 지방을 장악한 강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체계를 이어왔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군도에는 영토가 기반이 아니라 인적관계로 이루어진 고대왕국인 스리위자야(7~11c)와 마자빠히트(14~15c) 등이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보기에선 국경과 통치라는 개념이 결여됐다. 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은 외적이 아니라 섬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싸움이다. 섬나라 특성상 전쟁이 나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군도에 수많은 왕국간 충돌은 장수들의 대결과 협박이나 설득으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

됐다. 이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다.

문화인류학자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떠나 공통의 가치관을 중요시한다. 충(忠), 효(孝), 인(仁), 의(義) 덕목을 바탕으로 정통성을 중시해 때로는 흑백 논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외적의 침입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저항하며 과격하고 극단적인 국민성을 갖게 되었다.

한 나라 사람의 언어습관을 살펴보면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은 말할 때 수동태보다 능동태로, 예들러 얘기하기보다는 직설법으로 말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이 자동차를 팔거나 주택을 임대할 때 ‘dijual’ ‘disewakan’ 이라고 각각 수동태로 표현한다. 또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kurang tahu’ (잘 모르겠다) ‘mungkin’ (아마도), ‘kira kira’ (대략), ‘terserah’ (알아서 하세요) 등으로 애매한 표현을 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대놓고 묻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한국인에게 이런 표현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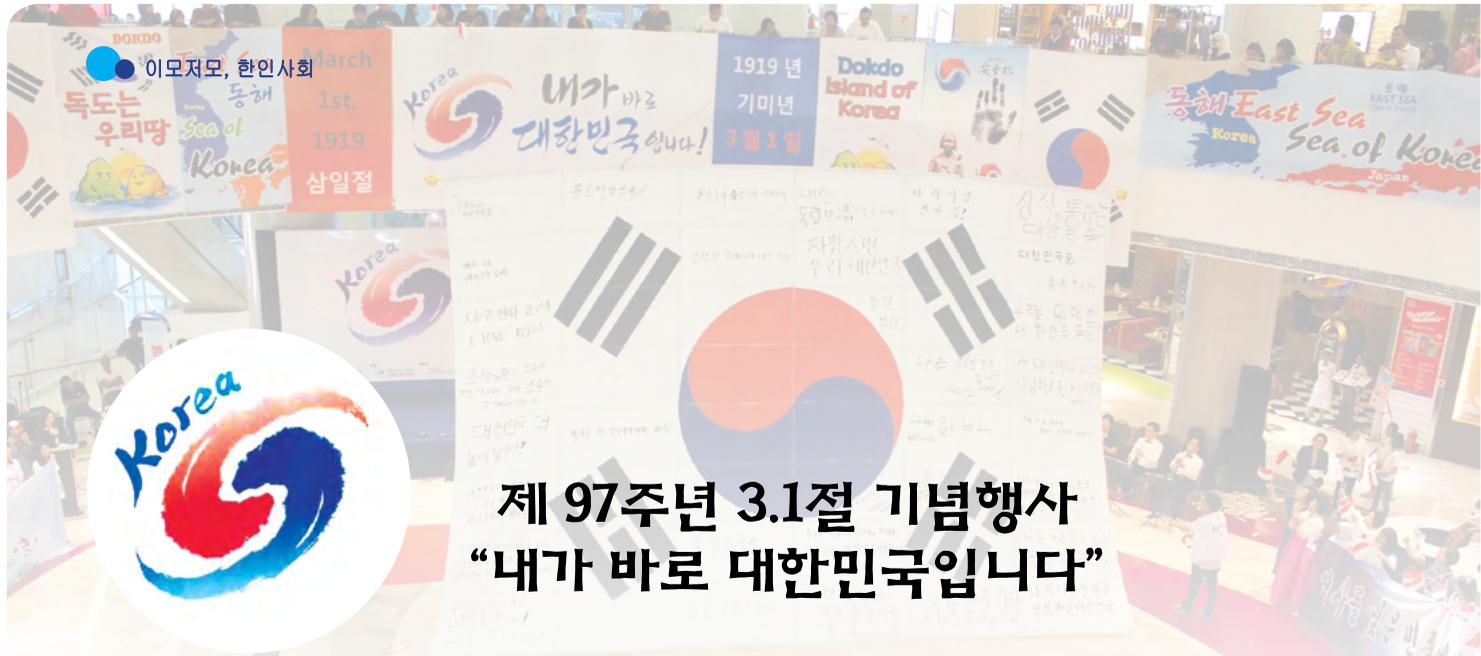
외국인들에게 한국사람의 특질에 대해 물으면 대표적인 단어가 “빨리빨리” (cepat cepat)다. 한국인의 근면함과 조급함이 함축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cepat cepat’ 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동차나 달리기 선수에게나 ‘빨리빨리’ 가 필요하지 평상시 ‘빨리빨리’ 할 일이 있는가?” 라고 반문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급할 때 빨리빨리 대신에 ‘cepatan’ ‘buruan’ ‘sedikit cepat’ 이라고 표현한다. 자바어로 ‘Alon alon asal kelakon’ 인도네시아어로는 ‘Biar lambat asal selamat’ 이라는 말은 ‘늦어도 괜찮으니 제대로 하라’ 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철학이다.

이들의 생활양식은 전통적인 주택을 짓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골격과 지붕을 얹은 상태에서 거주한다. 집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정서인 정(情)은 한국인의 특징이자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정은 인간관계에서 공유 부분이 많을수록 더욱 끈끈하다.정이 넘칠 때는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도 해 외국인들을 당혹스럽게까지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하지도 멀리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의 넘치는 정은 부담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의 절제로 우리의 특질인 화끈함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랜 친구관계에서도 끈끈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한국인은 모호함과 표리부동을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은 숨겨 표리부동하게 보인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짓는 미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미소 속에서 뉘앙스를 발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의 미소 속에는 즐거움과 만족감 등 긍정의 의도 있지만 근심과 부끄러움 또는 거부 의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인도네시아인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되고 인도네시아가 편하고 좋아진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상원격인 지역대표의회(DPD)의 이르만 구스만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중견국 협의체의 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했을 때 이르만 의장이 ‘한국 사랑’에 대한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Tak kenal maka tak sayang” (상대방을 알아야 좋아할 수 있다).



제 97주년 3.1절 기념행사 “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97년 전 독립을 선포하고 태극기로 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삼일절행사가 2월 27일, 롯데 에비뉴에서 펼쳐졌다.

한국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주관으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롯데쇼핑에비뉴, 재인도네시아 한인언론인협의회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국악사랑과 한바패의 상모판굿과 풍물놀이로 신명나게 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태권도시범, UPH 한국학생과 반동한 사모의 플래시몹퍼포먼스,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은 생동감 넘치고 잔치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색동회의 색소폰연주, 자카르타 아버지양상불의 공연, UNAS 학생의 K-POP 댄스, 박진감있는 인도네시아국가대표팀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모인 모두가 참가하는 박터뜨리기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모아 색색의 모래주머니로 태극기를 만들면서 고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삼일절노래와 아리랑, 애국가를 제창하며 인도네시아 속의 또 다른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태극기의 물결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2006년, 3번 연기된 SBY 한국 방문”



2006년 4월3일 재인니 한인회,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과 오찬 간담회



한인회/평통위원, 반기문 장관과 오찬간담회 가져

<한인뉴스 2006년 5월호>

지난 4월 3일 자카르다 화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인회 간부, 평통위원, 한인회(이하 평통) 자문회의 인사회의에 참석자들이 반기문 외교부장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한인회로는 처음으로 IN(이남) 출신 출신이 선임을 할 반기문 장관은 총남이, 아모리가를 여러 나라를 순방한 뒤 귀국 후유증과 인니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인니를 2일 3일 일정으로 공식 방문 중이었다.

오찬간담회에서 반기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날다운 전망을 표지했다. 인사발령에서 반기문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하산 위라유다 회부 장관과는 아세안 어느 나라



1. 연이은 조석결의 제막

하산 외근부 장관과의 조우

2005.12.25 “반다아체” 행 비행기 속에서 우연히 Hassan Wirajuda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일 년 전 2004.12.26 이 지역에 전대미문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13 만 명 가량이 사망하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1 주기 추모행사를 반다아체 현지에서 갖기로 하였고 한국은 추 경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대부분이 현지 대사를 추모특사로 파견 하였으며 장관급 이상의 특사는 싱가포르, 한국 등 몇 나라에 불과하였다.



Hassan Wirajuda

추병직 특사와 함께 반다아체 가는 비행기 속에서 하산을 만난 것이다. 하산 장관은 추병직 특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자리까지 와서 정중하게 사의를 표하였다. 나는 그 기회에 SBY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하산은 SBY 자신이 방한 시기로

5월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내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하산 장관께서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 상호 방문 일정을 조정함이 어떠냐고 떠보았다. 그러자, 하산 장관은 자신도 그 문제를 생각 중이라고 하면서 고위 실무급의 방문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비행기 출발에 앞서 10분 가량의 짧은 대화이지만 SBY와 하산 장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나는 SBY가 5월 방한을 희망한다는 한마디에 흥분하여 그가 한 말의 문맥을 따지지 않았다. 그때 한국 방문 희망을 검토해보라는 SBY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산 장관이 실무 고위급의 방문부터 하자고 뜬을 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했어야 했다. 이를 소홀히 한 죄(?)로 나는 SBY 방문 문제를 두고 연이어 좌절을 맞보아야 했다.

SBY의 부산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한국 방문이다. SBY가 서울을 방문하여 두 대통령이 긴 시간 이마를 맞대고 현안과 장래 문제를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변한 모습을 SBY의 입을 통하여 한국 기업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소벨은 단김에 빼야 한다고 했던가. 한국에 대한 SBY의 기대감이 충만할 때 한국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던 차 “SBY가 5월 한국 방문”을 언급하였다고 하니 나로서는 귀중한 연말 선물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셈이다.

정상회담이 왜 중요한가

정상 회담은 왜 중요한가? 나의 외교관 경험에 의하면, 대사가 수십 번 주재국 정부 실무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한 번의 외교부 장관방문이 더 효과적이며, 많은 장관 회담보다 한 번의 정상 방문이 더 효과적이다. 그만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상들이 만나는 계기는 국제회의/행사 계기에, 아니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두 가지 경우이다. 한국 대통령은 매년 APEC, ASEAN+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며, 유엔 총회도 임기 중 1-2회 참석한다. 유엔기후변화(COP) 포함하여 유엔이 주관하는 특별 정상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이들 회의의 중요성과 한국의 국력수준에 비추어 총리나 장관급이 대신 참석하기 어려운 회의들이다. 이러한 국제행사 기회에 양자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나 불과 30분, 1시간 만나는 것으로(통역 시간을 빼면 한쪽이 이야기 할 시간은 불과 10-15분 전후) 속내를 충분히 이야기하기 힘들다.

반면, 정상에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여 만나는 것은 그 격, 깊이와 중요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원수들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 사이 정상 방문 외교는 특히 중요하다. 정상 방문은 여러 장관들을 동행하며 많은 기업 총수들이 동행한다. 정상들은 정상 회담에 이은 오/만찬을 통하여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한다.

이들은 장 시간의 대화를 통하여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큰 사안의 매듭을 풀어주고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잡아 준다. 장관들과 기업인들도 카운터파트를 만나 성과 있는 접촉을 가진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기업 진출에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실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자카르타를 방문한 여러 기업 총수들로부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안정되었을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쟁, 길거리 데모, 노사 분규 및 테러 등 어두운 언론보도만 접하였지만 현지에 와 보니 전혀 다르다는 평가였다.

한편, 정상 방문을 앞두고 대사(관)는 주요 주재국 인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평소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정상회담 의제라고 하면 열 일을 제쳐 놓고 면담 시간을 비워준다. 대사에게 은근히 아부하는 주재국 장관들마저 있다. 어떻게 하던 그럴 듯한 의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대사는 이러한 기회를 빌려 부처 차원에서 현안문제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으로 넘겨야 할 중대 사안을 찾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국 간 몇 년 묵은 체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4월말 방한을 건의

하산 장관과의 조우 이후 연말연시 휴가 동안 나의 머릿속이 바쁘게 회전하면서 골프를 쳐도, 사람을 만나도, TV를 봐도 온통 SBY 방한 건 생각 뿐이었다.



2006.1.2 새해 벽두부터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전실, 지역담당 책임자들을 만났다. 우선 SBY 방문 일자를 정확히 알아서 본부에 건의해야 한다. 대사관 직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나라 외교부가 “4월 중 한국방문”을 대통령 궁에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자기들의 행정 절차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측이 구체적 일자를 자기(인도네시아 측)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대사관은 “4월 방한 건의” (외교부)와 “5월 방한 희망” (하산 장관 언급)을 절충하여 SBY의 한국 방문 시기를 “4월 초순부터 5월 첫 주 사이” 방문을 본부에 건의한 결과 본부로부터 승인이 왔다.

그러나 하산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제의 일자에 이미 SBY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는 공식 답변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실무자 의견만 듣고 “4월 말-5월 첫 주” 방문 계획을 본부에 밀어 붙였으니 대사로서 본부에 면목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첫 실패작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하산 장관이 의도적으로 SBY 한국 방문을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SBY 한국 방문과 인도네시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연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그 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경합하는 한편,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태국 외교부 장관과 경합 중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경합을 자신들에게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우리에게 넣고 있었다 (다음 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입후보).

하산 장관은 SBY가 한국을 방문한 후 하반기 안보리 진출을 두고 유엔에서 한국과의 표 대결에서 졌을 경우 그 여파를 우려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리 진출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는 SBY 방한을 미루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산은 또한 자신이 한국을 방문하기 앞서 반기문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먼저 방문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반 장관을 자카르타로 불러 유엔 안보리 진출 문제를 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나는 당시 이러한 하산 장관의 복잡한 수를 읽지 못하였다. 바둑 행마에 비교하면 그는 몇 수를 내다 보고 있는 데 나는 한 수 밖에 보지 못한 셈이다.

나는 그대로 본부에 보고하고 2월말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였다. 결과부터 말하면, 반기문 장관은 4.2-4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 자카르타에서 한인회와 식사)

그러나 나는 공관장 회의 기간 반 장관의 자카르타 방문 자체를 반대하는 본부 간부들과 심한 논쟁을 벌려야 했다 (다음 회).

“4월 말 5월 첫 주” 안이 물 건너가면서 대사 체면이 깎였지만, 방문에 대비한 준비는 많이 하였다. 많은 인도네시아 부처들이 참석하는 실무 준

비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그때 마다 내가 직접 참가하여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파워포인트(PPT)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 나라의 부처별 현안문제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주요 경제부처와 대사관 사이의 업무 협조 관계는 돈독해 졌다.

2. 조석의 제2막

2006.5.6 인도네시아 외교부 한국 담당 국장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Dear Ambassador Lee, I just received a message confirming that HE President SBY has okeyed his state visit to ROK from 7-9 June.” 4.2-4 반기문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SBY의 방한을 6.5-9 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그동안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최종 답변이 없어서 우리 측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급기야 5.1 서울 본부로부터 독촉이 왔다. 반 장관이 5.7부터 대통령을 수행하여 몽골을 방문할 예정인데 몽골 출발 전에 SBY 방문 일자를 확정하고 싶으니 며칠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공식 답변을 얻으라는 지시이다. 그러나 하산 장관은 당시 SBY를 수행하여 중동 5 개국을 순방 중이었다. 나는 4월 중동 출발 전 하산장관을 만났으나 답변을 얻지 못하고 중동 순방 중 자연스럽게 SBY에게 한국 방문 문제를 거론하여 답변을 얻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뿐이다.

나는 하산 장관이 5.4귀국 예정이며 하산이 귀국하는 대로 반-하산 간 통화를 함이 좋겠다고 본부에 건의하였더니 건의대로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나는 중동 여행 중 SBY 대통령과 하산 장관 사이에 한국 방문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하산 장관은 5.4 귀국한 다음 날 출근하여 우리 메시지를 받고 그날로 통화를 희망하였다.

나는 반 장관에게 전화로 이를 보고하면서 1) SBY 6월 방한 가능성 타진, 2) 만약 SBY 방한이 어려울 경우 우선 6월 외무장관이 주재하는 한.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개최, 3) 북한 문제, 4) 반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후보 로비와 관련하여 협조에 감사하다는 정도로 대응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장관은 그 날 오후 통화하였으며, 하산 장관은 6.7-9 SBY 한국 방문에 자신 감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과 함께 북한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산 장관의 성격에 비추어 6.7-9 방한일정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의미는 SBY의 재가를 이미 얻은 것으로 보여 진다. 외무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던 다음날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접수한 것이다.

그 후 인도네시아 의전실로부터 공식 외교공한을 접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방한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한 걸음씩 움직이는 외교행보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필요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 대사의 심정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이다.

정상방문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달 정도면 정상 방문 준비에 충분한 시간 같지만 그것은 정상방문의 의미를 모르는 소리다. 의전준비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은 1년을 두고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우 법적 문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방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98년 삼 십여 년의 장기 집권을 해 온 수하루트 퇴진 한 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로부터 십 년 가까이 외면을 받아 온 나라이다. 따라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2004.10 취임한 후 정치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장기 경제발전 계획들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이해하고 그 위에서 대규모 사업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행이 SBY의 방한 문제는 지난 1월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국 대사관은 그 해에 한국 방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나는 다수의인도네시아 경제 단체와 국영기업들을 방문하여 SBY 한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국 기업과의 개별 접촉, 아니면 상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SBY 방한 가능성을 두고 착실히 사업 발굴을 준비하라고 다짐 하였다. 실제, 이 과정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막연한 구상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발전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2016년 한국문화원 주요 문화행사(안)

일자	행사명	장소	주요내용
1.28	K-컬처 서포터즈 초청 히말라야 상영회	그랜드 인도네시아 CGVblitz	K-컬처 서포터즈 및 문화원 우수회원 초청 히말라야 상영회 개최
2.9	설맞이 문화행사	문화원	한국의 명절 설의 유래 및 전통문화 소개, 명절음식 시식회, 한복 및 전통놀이 체험전, 우수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2.12-15	우수문화공연 순회공연 달래이야기, 하룩이야기	아이스펠리스, 살리하라 공연장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달래의 마음을 서정적으로 담은 인형극 '달래이야기'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끝없는 희생정신과 사랑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하룩이야기'공연 및 워크숍 개최
2.22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문화원	정월 대보름 유래 소개 및 전통공예품 만들기, 한복 및 전통놀이 체험전 개최
3.10-13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한국디자이너 패션쇼	JCC	인도네시아 최대 패션축제 행사에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참여 특별 패션쇼 개최
3.13	아시아뉴스타모델선발대회 인도네시아대표 선발전	JCC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뉴스타모델 선발대회 인도네시아 대표 선발을 위한 예선전 개최
4월 중	K-POP World Festival	반등	한국문화원 주최 K-POP 댄스커버대회 개최, 한국문화 홍보·전시부스 및 문화체험, 퀴즈 온 코리아 반등 예선전 개최
4월 중	제6회 국제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	미정	한국,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 거주 국제아동 대상 그림 그리기대회 개최
5.5-5.8	아세안 문학주간	Taman Ismail Marzuki	아세안 국가 대상 문학주간 페스티벌에 한국도서 홍보부스 및 문화행사, 공연 개최
5월 중	한국영화 쇼케이스 행사	미정	우수한국영화 상영회, 영화정책 워크숍, 영화기술 세미나 개최
5월 중	한국대사배 인도네시아 태권도대회	미정	한국대사배 전국태권도 대회 개최, 국기원 시범단 초청공연
상반기 중	퀴즈 온 코리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족자 가자마다 대학교 등 명문 4곳 대학생들 대상 한국문화 주제 퀴즈대회 개최
7월 중	한국문화원 5주년 기념 문화행사	문화원	문화원 개원 5주년 기념 복합문화행사 개최
8월 중	POPCON ASIA 코리아세션	JCC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K-콘텐츠 소개 및 문화공연 행사 개최
8월 중	수라바야 권역 매력한국알리기	수라바야	수라바야 지역 및 인근지역민 대상 한국 우수 영화제, 관광페스티벌, 한식페스티벌 개최

9월 중	인도네시아 북페어 한국도서 특별전 운영	미정	한국도서 특별전과 문화 공연, 비즈니스세션 등 개최
9월 중	솔로국제 공연페스티벌	미정	국제적인 솔로공연페스티벌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팀 초청 공연 및 한국문화홍보전시 부스 설치
9월 중	발리 국제영화제 코리아세션	미정	올해의 우수 한국영화 상영 및 배우, 감독과 함께 관객과 소통하는 한국영화의 밤 개최 예정
9.15-16	추석맞이 한국문화축제	한국문화원	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알리고 다양한 추석음식 맛보기,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10월	한-인니 문화의 달 페스티벌	미정	국경일 행사계기 K-Food, K-Travel, K-Contents 페스티벌, 커버댄스대회, 전통·현대 예술공연, 태권도 한마당대회 등 최대 종합문화 행사개최
10월 중	제4회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전	미정	한-인니 양국 신진 작가들이 함께하는 미디어 설치미술 전시회 개최
10.9	한글날 기념 글짓기·받아쓰기 대회	한국문화원	세종학당(한국어강좌) 대상 한글날을 주제로 한 글짓기·받아쓰기 대회 개최
10월 중	한-인니 영화제	CGVBlitz	한-인니 우수영화 상영 및 지방권 영화열기 확산을 위한 지방 거점 주요도시 한국영화 상영, 배우와 관객이 만남 등 한국영화 페스티벌 개최
10월 중	자카르타 패션위크 코리아 세션	Senayan City	한-인니 신진디자이너 협력 세션 등 한국과 인니 디자이너 공동 패션쇼 개최
10월 중	반동 국제공연 페스티벌	반동교육대학	제1회 반동국제공연 페스티벌에 우수 한국공연팀 초청 공연 및 문화홍보 부스 및 체험행사 개최
11월 중	세종페스티벌	미정	한국, 한국문화, 한국어를 배우고 사랑하는 팬들 대상 퀴즈대회 개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12월 중	족자아시아영화제 코리아 세션	미정	코리아 특별세션 참여 예정
연간 수시 운영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미정	기관, 단체,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소개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영화 시사회	한국문화원	한국 우수영화 선정 시사회 개최
	한국문화원 견학프로그램	한국문화원	한국 관련 정보제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6 BUSINESS DIALOGUE -TIME OF TRANSITION-

‘인도네시아 진출 투자환경 개선보고서’를 인니정부기관 관계자에게 전달



좌로부터 이강현수석부회장, Robi Tomi관세청국장, 조태영대사, Sibarani투자조정청장, Shinta Kamdani아윈도 국제관계 및 투자담당부회장, 송창근회장, Lembong무역부장관, Rosan Roeslani KADIN 회장

한인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생존을 위한 한-인니 양국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2016 BUSINESS DIALOGUE 가 2월 23일 몰리아 호텔(자카르타 소재)에서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송창근)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경제 블록화 시대를 맞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송창근회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인니정부의 정책과 법률, 시장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한인기업인들의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이곳의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가 인니정부에 잘 전달되어 우리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태영대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있으나 취약한 인프라, 느린 행정 절차, 관료주의, 강화되는 외국인 노동정책, 보호주의적 환경 등의 내부적 요인도 우리기업인들을 위축시키는 만큼 인니정부를 향한 우리의 건의도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축사 하였다.

이어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재인니 한국대사



관, KOTRA 에서 준비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투자환경 개선 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Thomas Lembong 무역부장은 “조코위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후발적인 상황에서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을 신중히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셨다. 인도네시아가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180도 자세의 전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절차를 고민하여 편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일상에서의 현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힘쓸 것이다” 라고 밝혔다.

투자조정청장 Franky Sibarani는 “투자금 1천억루피아, 천명이상의 고용의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자에게 3시간 안에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One

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적법한 경우에도 복잡하고 지연됐던 진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 말하고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코리안데스크: 황종원소장)의 한국 기업과 소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2부순서로 TPP가입 및 올해 경제전망 등의 질의 응답시간 및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는 인드라 다르마완 BKPM국장과 로비 토미 관세청국장, 이강현 코참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보세구역 하청 규제완화, 전자상거래의 불법유통, 기존 외국인투자자 체류허가 등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의 간소화, 관련부서의 수출입 심사절차통합화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성명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北,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월 7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는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행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난달 6일 자행한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체제가 논의되는 시기에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든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경제병진 노선으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잘못된 선택에 근본 원인이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은 의장이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북한의 극단적 도발로 야기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 2. 8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 일동



BNI 은행 한인회 법인회원으로..

2016년 2월 17일, BNI 은행 Bambang Suharto 부행장을 비롯 은행관계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양영연) 방문하였다. 2016년 새로운 한인회의 법인회원이 된 BNI은행은 앞으로 한인회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상견례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신임 양영연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위한 회장단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2월 17일, 자카르타 시내 식당에서 회장단의 위촉장 전달과 분과를 배정하는 등 화합하는 한인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었다.



재인도네시아 해병전우회, 인도네시아 해병대 초청만찬

전 28대 한국 해병대 사령관 이상로 중장(현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총재)이 인도네시아 해병대 사령부 및 짚란닥 2사단을 방문하였다. 이상로 총재는 현재 인도네시아 해병대의 명예 사령관으로 되어 있으며, 인니 전.현직 사령관과의 친목과 한국 해병대 전우회(회장 김송정)와 인니 해병대의 화합을 돈독히 하기위해 2월 18일 재인도네시아 해병전우회 주관으로 만찬 (리츠칼튼 호텔)의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 전 해병대 사령관 : May.Jend (Purn) Nono Sampono,
- 전 해병대 사령관 : May.Jend (Purn) Junaedi Jahri,
- 현 해병대 사령관 : May.Jend (MAR) Buyung Lalana.
- 그 외 현 해병대 영광장교 10명 참석

<한국측>

- 이상로 전 해병대 사령관
- 재 베트남 해병전우회 연합 회장
- 재 중국 해병전우회 연합 회장
- 재 경남 해병전우회 연합 회장
- 재 인천 해병전우회 연합 회장
- 재 인니 해병전우회 회장 및 회원

<인니측>

- 재인니한인회장
- 민주평통회장
- 자총회장
- 대한체육회장
- 코참부회장
- 대사관 무관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제도 설명회 개최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KOCHAM)은 2월 16일(화)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 외국인력국장(Direktur PPTKA, Ditjen BINAPENTA & PKK, Kemenaker RI) Ibu Rahmawati Yaunidar를 초청하여 우리기업 소속의 한국인 및 현지인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및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외국인력고용허가(IMTA)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을 인도네시아 노동국 당국자로부터 직접 듣고 애로를 전달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 Rahmawati Yaunidar 노동부 외국인력국장은 외국인력정책의 근거법령과 정책방향을 언급하고,

- 2015년 10월 23일 개정된 2015년 제35호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구 법령과 비교하면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소개하였다.

특히, 대폭 규제가 완화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의 범위 및 자격, IMTA 연장의 지방노동청 위임,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Skype를 활용한 원격면담 방법, 온라인 외에도 직접 노동부 외국인력 전담 창구를 활용한 상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처리 방법, RPTKA 및 IMTA 승인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기업인들은 승인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하였으며,

-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 기존 한국인직원을 교체하는 새로운 한국인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업무상 공백을 지적하고 임시 고용허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또한 신발제조업계에서는 2015년 발표된 노동부장관결정(KEPMEN) 2015년 제15호에 규정된 매니저 직책에 대한 2년 고용허가 기간 후 연장금지 규정의 재검토 여부를 문의하였고,

- 기업들이 외국인직원의 중도퇴사시 흔히 겪는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환불절차와 입금 명의 오기시 정정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Rahmawati국장은 승인절차 지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직원 교체기의 임시 고용허가는 규정상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여 승인절차상 문제 발생시 연락을 주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한편, 신발업체가 제기한 KEPMEN상 매니저 직책의 연장제한 규정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유효한 법령이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 보상금 환불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외국인직원의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신속한 EPO와 환불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입금지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의 성명의 사소한 오류(예: 김국성 -> 김국선)는 정정 가능하

나 전혀 이름이 다른 경우(예: 김국성 -> 김치)는 불가하고, 입금자는 개인명의(개인은 외국인고용이 불가능하므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등기상의 정식 업체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노동부 당국자로부터 직접 설명과 해명을 듣고 질문함으로써 외국인력고용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 우리기업과 동포들의 불만을 노동부측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재인니한 인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Exhibition of Tangerang Culture Center Art Class

나들이전

Opening 5(금) Feb AM 11:00
 전시기간 2016. 2. 5(금) ~ 2. 26(금)
 찌카랑 자바 팔레스 호텔 2층 문화홀

palace HOTEL

Jl. Niaga Utara 1 Kav. 1-2, Jababeka 2
 Cikarang Jawa Barat Indonesia 17530
 Tel: +62-21 2928 1111, Fax: +62-21 2928 7300
 Telp: (+62-21)2948 7777 Money Changer Line1
 E-mail: reservation@palacejava.com

자화자찬 나들이전

지난해 12월에 땅그랑 문화원 회화반 <자화자찬> 그림 전시 작품들이 이번에는 찌카랑으로 나들이를 갔다.

<자화자찬-나들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찌카랑 자바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자카르타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번거로운 찌카랑 교민들을 위해 팔레스 호텔 측의 초청으로 다시 한번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엔 김선옥 화가와 이태복 화가의 작품과 함께 회원들의 작품 총 53점이 전시되어있다. 김선옥 화가(땅그랑 문화원 회화반 강사)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두 달만에 다시 열리는 전시회인만큼, 찌카랑 <나들이전>에는 또 다른 감회와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는 회화반원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서 완성한 유화작품들이기에, 의

미가 더욱 깊다. 이번 전시는 땅그랑과 찌카랑 교민들이 그림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첫 번째 장이 될 것이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타국에서 이런 특별한 전시가 열린 만큼,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그림 감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나들이전> 전시회는 2016년 2월 5일 ~ 2월 26일까지 열린다.



조민수 학생기자

제 1회 코윈재인니한글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끌라빠가딩 지역 4개교,
15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 참석, 개교식 및 입학식 성황리에 치러..

지난 2월 6일(토요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코윈인도네시아 지회에서는 제1회 코윈재인니한글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코윈 재인니한글학교는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초등학생들 및 중,고등 학생들에게 한국어, 역사 문화, 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코윈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박현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구정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끌라빠가딩 지역의 4개교에 입학신청을 마친 15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입학에 축하하였다.

박현순 코윈인도네시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 뿐 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등을 함께 배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귀한 시작을 함께 할 학생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며, 한글학교의 개교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11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코윈 재인니한글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에는 한인회 수석부회장, 대한민국대사관의 임현철 관세관, 정무영 영사, 송주형 주무관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입학에 축하를 하였다.

임현철관세관은 축사에서, ‘이제 코윈재인니한글학교가 시작된다. 한글학교운영은 쉽지 않으며 봉사의 마음과 열정, 노력,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열정을 불태워줄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 교사들은 우리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리문화의 멋을 차고 넘치게 지도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코윈 재인니한글학교의 입학식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년별 한국어 수준 테스트를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코윈재인니한글학교는 코윈인도네시아, 제외동포재단 및 대사관의 지원으로 한국의 국정 교과서 및 엄선된 부교재를 사용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의 수업을 진행 하게 된다.



<학년별 한국어 수준 테스트 중인 초, 중등 학생들>





이제는 내가 무겁구나!

이 할머니는 깔리만탄 섬의 다약족이다. 다약족(Suku Dayak)은 강가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 부족의 특징은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귀고리를 하도록 했다. 귀고리뿐만 아니라 부족의 상징인 문양을 손등, 발등, 손목, 발목까지 문신을 새겨두었다.

할머니와 중년 아줌마들 손발에는 똑같은 문양으로 그려진 문신을 보고 있으니 같은 여자로서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짠, 했다. 요즘은 예뻐지려고 문신을 하는데도 마취제를 하지만 그 당시 저들에게 무슨 마취제가 있었을까, 설령 마취제 역할을 하는 풀이나 나무뿌리가 있었다고 한들, 문신을 새기는 동안의 고통은 차마, 하면서 할머니는 상기되는 듯 미간을 찡그리며 이야기 하셨다.

내가 만나본 다약족은 상당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조상들은 남자에게는 잔인한 성인식을 했는데 사람의 목을 걸어두고 했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올려두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듣기만 해도 온 몸에 소름이 쭉악 끼쳤는데 그들은 용감한 조상이라고 자랑처럼 이야기 했다.

갑자기 할머니의 안부가 궁금하다.

작품명 : 이제는 네가 무겁구나!

사이즈 : 120cm x 70cm

촬영장소 : Suku Dayak,

Kalimantan Timur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최진열의 칼럼
경제를 말한다

2016년, 루피아화의 특별한 행보

글: 최진열 부장 (KEB 하나은행)

한국 -5.31%, 인도 -3.51%, 필리핀 -1.33%, 태만 -0.82%, 홍콩 +0.33%, 싱가포르 +0.65%, 태국 +0.81%, 말레이시아 +1.78%, 인도네시아 +2.74% / 작년 연말 대비 올해 2월24일까지 각국의 달러대비 환율 가치 변동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한국 원화와 인도 루피화가 가장 큰 폭으로 평가 절하(환율 상승)된 반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74% 절상(환율 하락)되며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목격되는 루피아화의 특별한 행보는 중국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하락 그리고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맞물려 30% 이상 평가 절하되었던 2015년과 현저히 다른 양상인 동시에, 외환보유고 감소세와 미국 금리인상 시 자본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주요 투자은행이 2016년 루피아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 냈던 2015년말까지의 분위기와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루피아환율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연기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글로벌 달러의 약세 전환으로 인한 혜택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안정, 경제 펀더멘탈 개선 및 경쟁국가 투자 환경 악화에 따른 대안 투자처로서의 매력 부각을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고, 환율 안정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자극함으로써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4.79%로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은 5.04%로 전분기 성장률 4.73%를 크게 상회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4.92%로 직전분기 및 전년도의 성장율을 하회하며 부진한 양상이 이어졌으나, 정부지출 및 투자 부문이 성장을 견인했다. 4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31%로 전분기 6.56% 및 전년도 0.87%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4분기 투자부분 성장률은 전년 대비 8.21%, 분기 대비 6.02%를 각각 기록하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지출 확대가 대



규모 개발사업을 연결고리로 민간 투자부문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역시 울어들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JCI(Jakarta Composite Index) 주가지수는 2월26일 기준 전년말 대비 3.1% 상승한 4,733.147를 기록, 연초부터 급락세를 보인 대다수 글로벌 주식시장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 주식 순매수 누적액은 114백만불을 기록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고, 중국 역시 7% 이상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조정 작업이 한창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주식시장 참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기악화라는 '대외악재' 보다는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이라는 '포텐셜' 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루피아 환율을 달러당 13,200~13,500선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기조 유지에 대한 자신감 이외에 전통적으로 루피아 절하 압력으로 작용해 온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의 2016년 인플레이션 목표는 4.3%,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5%로 각각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초부터 이어진 환율 안정세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정부의 간접자본 투자의 흔들림 없는 집행과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확대 등 시장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일 것이다.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서울 예술대학교와 인도네시아 대학 및 아티스트들 간의 프로젝트 협업을 공동 논의하다

서울 예술대학교(총장 유덕형) - 반둥공대(ITB), 반둥텔콤대학교(Telkom University), 자카르타 예술대학(IKJ)과 교육, 기술, 예술창작 분야 MOU 체결하다.



서울 예술대학교는 지난 1월부터 40여일 간 반둥, 족자,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30여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와 5개의 대학교, 그리고 4개의 예술기관을 방문하였다. 또한 위의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고 곧이어 2월부터 각 대학들과 실제적 MOA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족자예술대학(ISI), 반둥 교육대학(UPJ)과도 구체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향후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콘텐츠 개발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위 대학들은 2016년 가을 서울예술대학교가 주최하는 oneness(하나됨을 위한 glocal festival)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제작한다.

유덕형 총장은 “세계적인 반둥공대와 텔콤대학의 과학기술과 서울예술대학교의 예술이 접목하여 또 다른 예술의 지평을 열고자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적인 멀티 예술의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유럽,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마지막 남은 다양한 세계화에 기여하는 오리지널 예술이 숨 쉬는 곳입니다. 한국의 예술이 글로벌 예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예술과 접목되어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서울예술대학교 방문단은 가물란, 와양그림자극, 바틱 등 인도네시아 전통 예

술에 대해 경험하고 교수, 학생들과 같이 협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였다.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서울예술대학교의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다.



한편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서울예술대학교가 추진하는 일련의 프로젝트 계획에 동참하면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예술대학교가 경험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문화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인도네시아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국보급 예술가 Sunaryo, Nyoman Nuarta, Sam Udjo, Widayanto, Harry Darsono

두란노 인도네시아 교육재단,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제휴(MOU) 체결

두란노 교육재단(이하 “FDI” 라 칭함)은 2월 19일 한인회한*인니문화연구원(이하 “IKCS” 라 칭함)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제휴(MOU)를 박재한 한인회수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FDI와 IKCS는 인도네시아 내 공동 연구와 문화활동 그리고 학생을 위한 인도네시아 및 국제 인턴 프로그램 등을 마련, 협력하기로 했다.

FDI의 공동설립자 이용규 박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유학을 오는 한국 유학생들과 한국 교민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소개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IKCS의 사공경 원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



는 한국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와 정치, 문화, 외교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번 MOU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더욱 발전된 문화교류를 희망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등과 서울예술대학교를 연계해 주고, 오는 3월에는 패션디자이너 하리다르소노를 서울예술대학교에 초청하여 한국의 예비 예술가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유택형 총장은 “그들의 작품이나 연주, 혹은 자바의 영혼 바틱을 보면, ‘가장 인도네시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높은 문화 인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세계화를 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멀티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철학과 신에 대한 경건함,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그들은 이미 문화예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한*인니 문화연구원이 그 동안 일구어 온 인도네

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끈기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재인니 한인회원들과 펼쳐 온 심도 있는 활동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나타내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예술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고있는 그들과 지속적인 문화 예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인니의 문화, 교육, 예술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데 한*인니문화연구원과 같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결심을 밝혔다. 이에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한인회에 속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서울예술대학교와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15만8천여 명 신고·신청(잠정)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대비 27.1% 상승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158,135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각 2월 14일 13시 현재로 잠정 집계한 결과로써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124,424명) 대비 27.1%가 증가한 수치이며 추정 재외선거권자 198만 여명의 8% 수준이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접수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91일 동안 169개 재외공관과 252개 구·시·군청에서 실시되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외부재자는 109,281명으로 69.1%이며, 재외선거인은 48,854명으로 30.9%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9,884명으로 가장 많고, 상하이총영사관 7,604명, LA총영사관 7,349명의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37,691명, 일본 29,376명, 중국 21,637명 순이다.

재외선거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제19대 국선에서는 복잡한 신고·신청절차와 멀리 떨어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이외의 장소 및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인터넷 신고·신청자는 총 52,740명으로 신규 신고·신청자 전체의 43.7%, 영구명부제 등록자는 총 37,480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여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비 33,711명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앙선거위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부분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관 파견 인력 축소(55명→20명) 등에 따른 홍보 부족, 추가 투표소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표참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과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신청서 등의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작성되며,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마다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29개의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위는 대한민국 정치에 재외국민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마감상황(잠정)

[2016. 2. 14.(일) 13:00, 재외선거상황실]

1. 신고·신청 접수·처리상황 : 총 158,135명(7.99%, 공관 158,099명 + 국내 36명)

2. 대륙별 신고·신청 접수상황

대륙별	공관수	예 상 선거인수	신고·신청 합 계 (신고·신청률)	영구명부 등재자수	신규 신고·신청자수		제19대 국선현황 (신고· 신청률)
					재외선거인 (신청률)	국외부재자 (신고율)	
계	169	1,978,197	158,099 (7.99)	37,480	11,374 (1.32)	109,245 (9.81)	123,418 (5.53)
아 주	49	1,056,941	81,434 (7.73)	20,225	3,921 (0.95)	57,288 (8.91)	68,740 (6.33)
미 주	37	795,494	54,401 (6.84)	16,543	7,094 (1.66)	30,764 (8.37)	34,667 (3.36)
구 주	45	96,252	15,726 (16.35)	652	333 (1.48)	14,741 (19.98)	13,388 (14.33)
중 동	17	20,342	4,193 (20.69)	20	8 (8.08)	4,165 (20.65)	4,455 (35.57)
아 프 리 카	19	9,168	2,345 (25.97)	40	18 (0.67)	2,287 (35.99)	2,168 (25.73)

※ 제19대 국선(총 124,424명, 공관 123,418명, 국내 1,006명) 대비 33,711명(27.09%) 증가

※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 : 재외선거인 30.9%, 국외부재자 69.1%

※ 인터넷 신고·신청자 수 : 52,740명(전체 신규 신고·신청자 수 43.72%)

3. 주요 3개국 신고·신청 접수상황

국가별	공관수	예 상 선거인수	신고·신청 합 계 (신고·신청률)	영구명부 등재자수	신규 신고·신청자수		제19대 국선현황 (신고·신청률)
					재외선거인 (신청률)	국외부재자 (신고율)	
미 국	13	659,292	37,691 (5.72)	10,343	4,656 (1.36)	22,692 (7.14)	23,027 (2.66)
일 본	10	400,361	29,376 (7.34)	18,788	3,199 (0.94)	7,389 (12.18)	18,575 (4.02)
중 국	10	295,479 295,479	21,637 (7.32)	215	96 (2.15)	21,326 (7.33)	23,915 (8.10)

<열린 한인회, 소통하는 우리>

“한인 동포의 안전을 책임진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동포의 안전을 책임진다” 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자(강희중편집인): 테러, 질병, 천재지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이제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 안전지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국을 떠나 온 타지의 동포로서의 삶이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포의 안전을 위한 한인회(이하 **한**)와 대사관(이하 **대**)의 준비 사항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인동포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난이나 테러시 한인 동포의 행동 수칙이 있다면?

한(양영연회장):

한인회는 비상연락전화 (0812-1960-308)를 24시간 오픈 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동포안전과 권익을 위한 분과를 개설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동포의 안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포안전 수칙 수립 및 대사관과 연계 조직을 확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인동포들이 한인회에 개인회원으로의 가입을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한인동포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재국에서의 테러 및 재해 발생 정보, 본국의 안전관련 동향 입수시 즉시 대사관 홈페이지 및 SNS, 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동포 사회 전파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한인의 사고나 사망 시에 처리 협조 방안이 있다면?

재난이나 테러시 한인동포 구조방안은?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재난이나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한인동포의 안전을 확인하며, 한인동포 피해 발생 시 대사관 주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신속대응 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주재국 구조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인동포의 안전확보 및 사고 수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영연회장):

그 동안의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 수칙을 정하여 재난이나 테러시 당황하지 않도록 동포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사건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건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한인회와 대책을 협의할 것입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 국가와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현안 발생시 주재국 정부의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필요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재국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양영연회장):

한인회에서는 지역별 통신원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중부, 북부, 찌카랑, 버가시, 찌부부르 및 각 지역 한인회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사건·사고 발생 시 대사관은 주재국 해당 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현황 파악 및 주재국의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등 주요접촉기관과는 상시 연락 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인간의 범죄발생 시도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재국의 법령 위반 시 아국인이라 하여도 주재국의 사법권 관할이 미치며 이는 각국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아국인간 사건으로 피해가 경미하여 주재국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모두 대사관 중재에 동의한다면 아국인 보호 차원에서 대사관에서 개입하여 중재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자: 한인의 인도네시아 여행 시 사고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본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여행객을 위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여 방문국에 대한 기본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아국 휴대전화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입국 시 주의사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



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및 대사관의 자체 비상연락망(영사협력원/지역한인회/선교사 등) 및 24시간 당직전화 운영으로 여행지에서의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인의 한인에 대한 범죄 사고 시 조치방안은?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의 한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 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대 (정진관경찰영사) :
주재국 국민과 한인동포 간 사건사고가 발생시에도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재국 사법기관에서 법절차를 위배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현저히 부당한 사건 처리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사관 영사과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대사관은 해당 사법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외교공한을 발송하거나 필요시 해당 공무원 및 기관장을 면담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범위는?

대 (정진관경찰영사):
주재국 인터폴과는 국제공조수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 협조 요청, 도피사범에 대한 소재 발견 및 송환 협조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한인간의 분쟁 조정 방법이 있다면?

한 (양영연회장):
한인회는 한인 간의 분쟁 시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방안을 제시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자 합니다.

대 (정진관경찰영사): 최근 한인동포 간 분쟁으로 인해 주재국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상 분쟁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사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호 폭행, 강도·살인·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주재국이 음주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이슬람 국가임을 늘 명심하여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시고 언

행을 자제하는 모습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대사관과 한인회의 협조방안은?

대 (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올해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신임 양영연 한인회장으로 바뀐에 따라 한인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한인사회가 화합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인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회자: 끝으로 한인동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한 (양영연회장):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늘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주재국법령 및 문화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삼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 (정진관경찰영사):
아울러 주재국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발전 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대방 이메일을 해킹하여 이런저런 평계를 대며 대금 지급 계좌 번호 변경을 요구(이런 경우 반드시 거래처에 유선으로 사실 확인이 꼭 필요 함)하는 무역사기 해킹 피해, 신용카드 무단 복제로 인한 피해(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 서비스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처리하여 무단 복제되는 경우를 방지 해야 함), 인터넷 뱅킹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대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 시간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은 한인뉴스 3월호에 게재하여 한인동포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인회와 대사관은 긴밀한 공조로 한인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이카, 코린도그룹과 파푸아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앞장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2월 23일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린도(KORINDO)와 함께 파푸아주 동남부 내륙에 위치한 아시키(Asiki) 지역에서 “지역사회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ASIKI POLYCLINIC’ 착공식을 가졌다.

코이카는 기업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린도가 대규모의 팜농장과 합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키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병원 설립을 통한 생활환경 및 건강 증진 사업을 금년부터 3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코이카와 코린도는 앞으로 변변한 병원이 없는 아시키 지역에서 최초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설립하여 일반 진료뿐 아니라, 산전, 출산, 산후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한 영유아 보건 서비스, 원거리 환자들을 위한 모바일 진료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키가 위치한 보벤디굴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파푸아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아사망률, AIDS 및 HIV 유병률, 모자건강 및 각종 질병 등 보건지표가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금번 병원 설립은 아시키 지역에서 이러한 지표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 기회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착공식에는 한국 측에서는 주인니 한국 대사관 이명호 총영사,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코린도 파푸아지역 총괄본부 이종명 본부장, 이순형 상무 및 코린도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인니측에서 보벤디굴군의 예사야 메리시 군수, 보벤디굴군 보건지소 비비아나 소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A등급 병원이 없는 파푸아 지역에서 아시키 클리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코린도의 지역사랑이 담긴 이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예사야 메리시 보벤디굴 군수는 보건 상황이 열악한 아시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병원 설립에 크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많은 기회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이카는 코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계획대로 병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인니 본격적인 전자정부 협력시대 개막 인니 자카르타에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에서 열린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 유디 크리스난디(오른쪽에서 세번째)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등과 함께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 행정자치부는 2016.3.2.(수)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유디 크리스난디(Yuddy Chrisnandi) 행정개혁부장관,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관계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IT 업계 종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는 2014년 1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자정부 협력강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디 크리스난디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의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설제안에 따라 작년 8월 제2차 한-인니 전자정부 공동위원회에서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후,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된 것이다.

협력센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개혁부 청사 4층에 개설되어 ‘18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양국이 전자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니정부와 전자정부 공동연구, 전자정부 컨설팅,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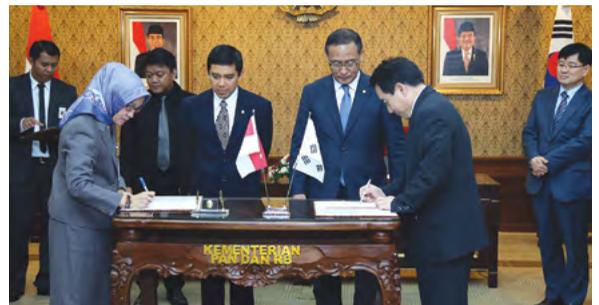
이번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는 양자면담 등 단순 협력을 넘어 인니정부가 국가핵심과제인 행정개혁·전자정부 협력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각축장이 된 거대 인니시장에서 전자정부협력센터가 우리기업과 인니정부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인니 및 주변 동남아국가로의 전자정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협력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2일 오후에는 홍윤식 장관이 인니 행정개혁·전자정부를 담당하는 고위급 및 중간 관리자 등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혁신과 정부3.0’을 주제로,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에 우리기업이 가지는 기대도 컸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는 인니의 전자정부 수준을 한층 발전시켜 조코위 정부의 공약인 깨끗하고 효율적인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또한 인니 협력센터가 인니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 ICT 기업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에서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운영 규정 서명”을 가졌다.

2016년도 자카르타 국제음악콩쿠르

자카르타의 음악도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과 표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나아가 자카르타의 한국음악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개최일시: 2016년 4월 30일 (토) 오전 9시
2. 개최장소: 자카르타 한국학교 나래홀
3. 참가자격: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초, 중, 고교생 (홈스쿨링 학생도 해당학년으로 참가가능)
4. 응시부문:

성악부문	독창	분위기가 다른 자유곡 2곡
기악부문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오보에	독주	빠른 tempo의 자유곡 1곡
	중주	자유곡 1곡

5. 참가부문 연령 구분

- 초등 저학년부 :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생
- 초등 고학년부 : 200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 중등부 :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
- 고등부 :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생

6. 유의 사항

- 오디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사본**과 **학부사본 2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모든 곡은 악보로 연주하며 독주악기는 반주자를 대동 해야함.
- Concerto는 반드시 cadenza를 포함해야함.
- 전년도 참가곡으로 참가할 경우 실격 처리함.

7. 시상 내역

전체부문 수상자	1등 : 주인도네시아 대사상 1명 2등 : 한인 회장상 1명 3등 : 한인 문예총 회장상 1명	
각부문별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별 1,2,3등 각 1명

- * 특전: 전체부문 수상자와 각 부문의 1등 수상자는 입상자 연주회의 기회를 부여함.
 우승자 연주회 일자 : 2016년 5월 15일 (일)
- * 단, 해당부문에 우수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해당부문의 한, 인니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의 심사.

8. 참가 신청

- **접수기간** : 2016년 2월 1일 ~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참가비 입금 후 입금증 (입금자와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을 jakarta.kma@gmail.com 으로 이메일 발송
- 입금 확인 후 지원서 및 유의사항 회신함. (문의전화 : 0821-1274-3014)
- 참가비 : Rp500,000
- 입금 계좌 : Mandiri 126-00-0929292-0 Woo Kyunghee
- 문의 : jakarta.kma@gmail.com 또는 musicjakarta7@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인음악협회

미래에 대한 목표를 심어주는 우리학교 BSJ를 소개합니다!

The British School Jakarta

TES independent school awards <2015세계 최고의 영국국제학교 상> 수상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ritish School Jakarta는 매년 우수한 졸업생들을 다수 배출한다. BSJ는 영국 Cambridge, Oxford등의 대학이 인정한 교육 기관으로, 재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 bridge to the world (세계를 향한 교량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British School Jakarta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목표를 심어주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다. 공부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BSJ에서 근 11년 가까이 공부한 것은 행운이다. 선생님과 학생간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우리 학교만의 매력이다. 학생들에게 설명보다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요시하며 학업과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영국 전통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JIS와 다른 국제학교와는 다른 색깔의 교육을 제공한다.

자유롭고 편안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엄격한 규율을 내세워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도 갖추게 한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국식 기초 학습을 교육하지만 10학년부터 13학년까지는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교육 과정, IB Diploma 심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식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BSJ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적성에 맞는 과목이 없을 경우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교내 담당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성실함을 요구하는 IB Diploma 커리큘럼을 학습하며 생활습관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게으름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제를 보며 체계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시간을 금같이 여기며 나태함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BSJ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포츠부터 음악 활동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업 이외에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나는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였다. 교내 Performance Orchestra에 가입하며 예술적 감각을 늘렸고 폭넓은 감성을 충족하였다. SEASAC, FOBISIA 등 전세계 유명한 영국 학교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제에 BSJ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명성을 높여왔다.

대학 입시 시즌이 다가오며 나는 또 한 번 BSJ의 체계적인 운영에 감탄했다.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며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 세계적인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1년에 3번, 최고 우수 대학교의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회도 개최하며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며 어릴 때부터 본인의 장래에 대한 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소 사회 현상,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지적인 충격을 시켜주며 ‘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해준 것도 이 덕분이다.

나는 10년동안 British School Jakarta에 재학하며 나의 미래에 대한 확답을 찾았다. 우리는 동경을 원동력으로 삼아 무모한 도전을 한다. 성공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이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첫 걸음을 떼었으며, 이 글을 통해 BSJ의 진가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유범, British School Jakarta Year 13

학교 홈페이지: <http://www.bsj.sch.id>

재외국민, 바뀐 국내 건강보험 혜택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4항).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사람

건강보험과 국내체류기간

Q.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교포입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지요?

A.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등 관련 서류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참조).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본문).

- ◆ 주민등록(「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을 한 사람
- ◆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사람
- ◆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한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단서).

-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 외국인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1부
- ◆ 재외국민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가입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 ◆ 사용자는 위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 ✓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한 사람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3항).

◆ 재외국민

-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외국인

-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1부
-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과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 7. 30. 발령, 2015. 10. 1. 시행)에서 정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82-33-811-2001

*보험자 자격문의 (서울지역)82-02-21268846/7

한국무역협회-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우리은행(행장이광구,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Bank Woori Saudara))이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

26일(금) 자카르타에서 김정관 무협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 글로벌그룹장은 양사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하는 무역협회 회원사들에게 우리소다라은행 회의실 등 편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창구를 이용한 진출상담과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말 우리은행이 투자하여 출범한 우리소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 17개 도시에 131개 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무협 자카르타지부도 비즈니스 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하고 하반기부터는 무역업체 대상 공항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협은 업무협약식과 함께 주인도네시아 조태영 대사를 비롯한 각계 지원기관, 현지 진출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유망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인근 무역협회 차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 해주신 한인 기업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무역협회는 한인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AEC출범에 따른 유망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라며 세미나 개최를 알렸다.

첫번째 순서로는 김용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김용태 실장은 ASEAN 연합 현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아세안 무역 및 투자 동향, 아세안을 둘러싼 한중일 경합에 대해 강의했으며 유망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이어서 방치영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이사의 인도네시아 노동 관리 전략 설명이 있었다. 방치영 이사는 현지 인력의 특성과 관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인력관리 어려움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천여 한국기업 중 무역업체는 약 20% 정도”라고 하며, “앞으로 더 많은 무역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리다르소노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 족자, Kelaten, 마디운, 솔로-

일시: 2016년 3월 12일(토) -3월 16일(수)
 집결: 3월 12일 오후 6:30 한*인니문화연구원(브리핑)
 회비: 450만루피아
 신청: 밴드넷글, SMS/KT(love520813) 08161909976 (10명 한)
 (접수 후 계좌번호 드림. 송금 순 접수)
 12일(토) 오후8:45 출발 Gambir Station (by train)
 13일(일) 오전4:20 도착 족자→Kelaten→족자(by Mini Bus)
 14일(월) 족자→솔로(by train)
 15일(화) 솔로→마디운→솔로
 16일(수) 솔로→자카르타(by Airplane)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제 36차 헤리티지 방문 - 녕마주의 마을의 작은 학교 “스콜라 까미”

일시 : 2016년 3월 31일(목) 9시
 집합 장소: 처토스
 목적지: sekolahkami.web.id
 Jl. Bintara Jaya IV
 Gg. Masjid RT.03 RW.09
 Bintara Jaya, Bekasi Barat
 Jawa Barat 10시
 회비 : 15만 루피아
 (전액 쌀과 라면등 의 기부금으로 사용됨)

스콜라 까미는 전교생이 100여명의 초등 학생으로, 쓰레기 마을 옆에 나무가 우거진 작은 학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작으나마 봉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앙쿨롱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스콜라 까미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옷, 신발, 학용품 등 중고 생활 필수품을 미리 수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0812 8231 3553)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

헤리티지 사진 콘테스트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Photo Contest

작품 내용: 국립박물관 유물과 건물(인물 제외)
 (Museum Gajah)
 Jl. Medan Merdeka Barat
 작품 규격 : 칼라 8X10 작품명, CD나 USB로 전달
 (사진 확대를 위해 원본 제출), 참가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출품수 : 6점 이내 문의 : 08161300210
 접수처 : 헤리티지 도서관, 플라자 스나얀 BD센터
 스나얀 사투 17층 021-572-5870 Ms. Nida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경까지,
 전화로 미리 근무시간 확인해야 함)
 접수날짜 : 2016년 4월 1일~ 4월 29일
 발표: 개별연락
 전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1일(토)~ 25일
 (수) 롯데 쇼핑 에비뉴 메인 아트리움
 수상작에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
 후원 : 재인니 한인문예총

Cultural Convention

(학생기자 김교빈)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Cultural Convention는 음악, 드라마, 토론, 웅변, 미술 그리고 무용 부분들로 이루어진 행사이며 동남아 국제학교 연맹 (IASAS)에 가입되어있는 6개의학교의 대표팀들이 모여 연습해온 실력을 뽐내고, 워크숍도 하면서 갈라 공연을 준비한다. 이 공연은 IASAS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번 학년도에도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JIS 현악기 8명이 학교 대표로 뽑혔다. 바이올린 연주자 2명 (최재병 12, 강수민 11), 비올라 연주자 1명 (김재호 11) 그리고 첼로 연주자 5명 (차현진 12, 김영준 11, 남경지 11, 신예환 10, 이세민

10)은 3월 2일 필리핀 국제 학교 (ISM)에서 열릴 IASAS Cultural Convention을 위해 2달동안 주중 3회 그리고 주말에 개인적으로 두 시간씩 만나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한다.

JIS 현악기 학교 대표 8명은 각각 솔로 곡을 준비했고, Strings Quartet이랑 Cello Quartet으로 나누어 Strings Quartet은 보로딘의 현악사중주 2번 라장조 ‘녹턴’ 中 안단테 그리고 Cello Quartet은 로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 서곡을 연주 할 예정이다. 한국인 현악기 연주자들이 이번 IASAS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들을 뽐내고 멋진 음악을 들려주길 바란다.



6인의 감성전

“Six Senses & Sensibilities”

10시부터 ~ 5시 까지 (일요일 휴무)

2016년 3월 28일 ~ 4월 4일 (8일간)

한인미술협회 회원 중 상반기
신임회원 그룹전을 실시합니다

작가/ 박정은, 장숙희, 김선주, 손희정, 허자경, 김도윤

각 4점씩

6인의 작가 42점 작품/ 한국문화원



2016년 2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니 경찰, 게릴라 작전으로 테러용의자 41명 검거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20일 자바섬 일대에서 급습작전을 벌여 테러 용의자 4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사리나 백화점 테러에 대응한 대테러법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검거작전을 벌였다. 대테러팀은 중부 자바 숨빙산 기슭에서 이슬람 지하디 요원 36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급습작전에서 다수의 무기를 압수했으며 이들의 테러 연관 가능성을 두고 조사중이다. 아울러 동부 자바주 말랑 지역에서도 테러 용의자 5명이 체포됐다.

앞서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카르타 자폭테러와 연관된 용의자 33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



며 인니 정부는 2003년 제정된 대테러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대 50% 할인” 라뚜 플라자서 24~26일 간 이온몰 특별 판매...

일본계 쇼핑몰 기업인 이온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모

션을 24~26일 3일간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라뚜 플라자 빌딩 8층에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반편 주 남부 땅으랑에 위치한 이온몰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화답하기 위함이다.

특별 행사장에서는 남성용 수제 구두와 셔츠, 두부, 쇠고기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또, 불가리, 랑콤 명품 브랜드 향수와 LG와 파나소닉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최대 50% 할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온 특별판매는 24~25일 오전 11시~오후 8시, 26일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성매매와 전쟁...3년 안에 전국 홍등가 폐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성매매 일소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전국의 집창촌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인도네시아 사회장관은 전국 168곳의 홍등가 가운데 지금까지 68곳을 폐쇄했으며, 나머지 100곳도 앞으로 3년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집창촌 폐쇄조치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직업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 자카르타 인근의 홍등가에서 일해온 여성들을 위해 사회부 산하의 여성사회복지시설도 개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홍등가 폐쇄 조치는 최근 자카르타 최대의 홍등가인 '칼리조도'에서 술을 마신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사고 이후 시민단체 등은 칼리조도를 폐쇄하고 이곳에 공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에도 수라바야 시 당국이 현지 최대 규모의 홍등가인 '돌리' (Dolly)를 강제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성매매 종사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폐쇄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홍등가로 흩어져 영업을 계속해왔다.

스나얀 골프연습장, '도심 숲' 으로 변한다

정부가 글로라 봉 까르노(GBK)에 위치한 스나얀 골프 연습장을 도심 숲으로 변신시켜 다가오는 2018 아시안 게임 스포츠 복합단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GBK 스포츠 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이사 위나르또는 "연습장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지역개발규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여가 활동이 가능한 녹지'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 지역을 무료 공공장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비난에 위나르또 이사는 "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지하 MRT 건설이 시작되면 주변 지역에 역이 설치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개조 작업은 GBK 운영위원회가 산림환경부, 자카르타시 행정부와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가게 된다. 사업팀은 4.6헥타르에 달하는 골프장에 이국적인 식물들을 심어 녹지 지대를 형성한다.



정부는 현재 설계 초기 단계에 있으며 3월 전에 건설 및 식목 작업을 시작해 오는 2017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산림환경부 사무총장 밤방 헨드로요노는 이번 사업이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5천 헥타르의 녹지 지대를 형성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 “Hak Pakai”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Q 1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인도네시아 까라왕 자동차공단 근처에서 5 Ha 토지에 아파트 시공 및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중인 땅이 HGB(건축권)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파트 구매의사가 많다고 부동산 에이전트 업체에서 말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A : 제일 먼저 중요한 사항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판매 대상이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이나 입니다. 까라왕 자동차 공단이라면 토요타 및 이수주 자동차 공장이 있으며 일본인 근로자가 주 판매 대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인도네시아인 중간급 근로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5 Ha 토지상 권리인 HGB를 토지청에 요청하여 HGB와 Hak Pakai로 토지상 권리를 변경분할하여 외국인 근로자용 몇 개의 아파트 타워는 Hak Pakai위에 시공분양하고 내국인 근로자용 몇 개의 아파트 타워는 HGB상에 시공 분양하면 됩니다.

Q 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Hak Pakai 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로써 저당권 설정이 안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HGB를 Hak Pakai로 변경할 필요가있을까요?

A : 필요합니다. 1996년 법률 제 4호 저당권법이 발효되기전까지는 문의하신분의 말씀이 맞으나 1996년 저당권법(UUHT)발효부터는 동법 제 4조 2항에 의거 국가토지상에 설정된 Hak Pakai

권리의 토지위에 건축된 아파트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여 은행에 담보물권으로 제공되어지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상의 아파트를 건축하실 경우 HGB의 토지를 Hak Pakai로 토지상 권리를 변경 후 건축하는 것이 유리하고 당연합니다.

Q 2 저는 KITAS 소지자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개발사의 찌까랑 소재 HGB상위에 건축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개발 판매사는 PPJB라는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니 완전한 제 소유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A : 틀립니다. 현행 토지기본법(UUPA) 및 아파트법(UU Rumah Susun)에 의거 외국인은 HGB상에 건축된 아파트의 권리 주체가 될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파트 가격을 완납후(PPJB Lunas) 계약을 아파트 개발사와 맺었더라도 귀하의 권리의 주체에 흠결이 있어서 분쟁시 또는 아파트 개발사가 파산처리시 PPJB상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하고 귀하의 아파트는 개발사 소유의 아파트로 처리될 수가 있어서 귀하의 아파트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단지, 저렇게 큰 회사가 파산 할리가 없다는 막연한 신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2 그렇다면 Hak Pakai로 된 아파트를 어디에서 판매하나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만...

A : 맞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Hak Pakai상에 건축된 아파트는 저 역시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첫째, 일반인의 통념에 Hak Pakai는 HGB보다 하위 레벨의 토지등급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그 생각의 근거에는 1996년 법률 제 4호로 저당권법 (UU Hak Tanggungan)이 발효되어서 Hak Pakai도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그 법률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1960년 법률 제 5호인 토지 기본법 (UUPA)상 3개 권리만 저당권 설정의 대상권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개발의 주체인 개발사들은 굳이 건설 대출도 받지 못하고 할부 분양도 할 수 없는 Hak Pakai토지상에 개발하기 보다는 HGB로 개발을 하였으며,

셋째,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PMA로서 HGB 권리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의 인도네시아내에서 부동산 소유인식이 덜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정부령 제 103호에 의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은 있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향후 모든 아파트는 오직 Hak Pakai상 토지위에만 건축이 가능하고 모든 은행은 반드시 Hak Pakai 권리의 토지 또는 주택/아파트상 저당권 설정이 되어서 은행 대출을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없는한 향후에도 부동산 개발사의 Hak Pakai 토지상에 건축을 기피하고 결국 외국인은 AJB(매매 계약)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인 PPJB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Nominee(타인명의 사용)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양방의 분쟁은 계속 될것이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의지는 퇴색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Tips 1 : 토지기본법(UUPA.1960년 법률 제5호)에는 국가 소유토지를 신청하여 부여받는 제 1群의 土地群에 Hak Milik, Hak Guna Bangunan, Hak Guna Usaha, Hak Pakai, Hak Pengelolaan와 같이 5개의 토지상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토지상의 권리인 제 2群에는 Hak Guna Bangunan, Hak Pakai, Hak Sewa, Hak Usaha Bagi Hasil, Hak Gadai, Hak Menumpang의 6개의 토지상 권리가 있다.

Tips 2 : 일반적으로 동포들께서는 용어의 해석에 치중하여 Hak Milik만 소유권이 있고 HGB 또는 Hak Pakai는 소유의 개념이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나 3개의 권리 모두 소유, 사용, 건축, 임대, 매매, 저당권 설정의 권리가 있으나 단지 Hak Milik은인도네시아 자연인(사람)에게만 주어지며 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HGB는 권리의 주체가 3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Hak Pakai는 권리의 주체가 가장 포괄적인 7개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2개의 토지상 권리는 기한마저 이제는 똑같아져 상하 레벨이 아닌 동일한 등급의 토지입니다. Hak Pakai의 7가지 권리 주체로는 내국인, 내국법인, 국가기관, 종교단체,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외국법인, 대사관 또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상 권리인 Hak Pakai가 없었다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Hak Pakai를 외국인에게는 효자라고 불려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는 향후 Hak Pakai상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시어 동포들께서 법적으로 보호 받는 부동산 매매와 권익을 누리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에서 현대 문인화로의 교각, 제백석

“말을 하려면 남들이 알아 듣는 말을 해야하고
그림을 그리려거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을 그려야한다.” - 제백석

저는 대기만성으로 서서히 천재성을 발휘했던 중국의 화가 제백석(1864~1957)을 아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현대 중국 화가로 현대 문인화로 건너가는 중요 포인트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백석은 후난성의 가난한 농부의 아이로 태어나 목수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독학으로 했던 그림을 53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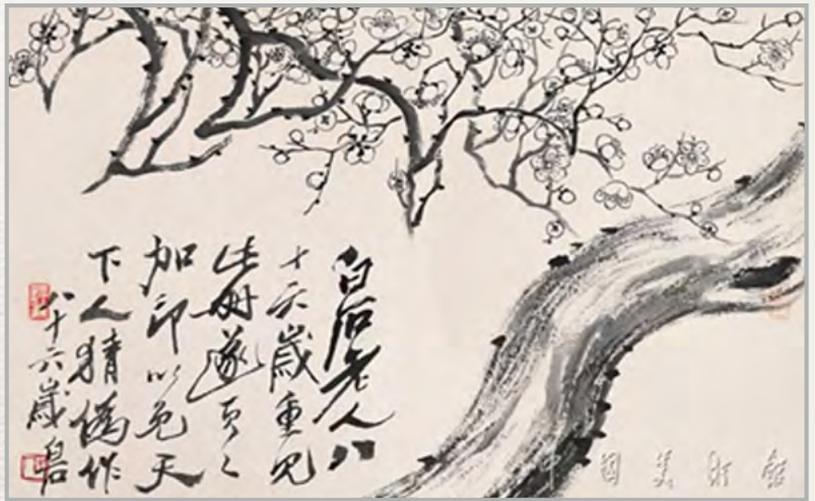
그는 꽃과 새, 곤충과 물고기, 새우 등을 소재로 자연의 정취를 끊임없이 그렸고, 산수, 인물 그리기에 능했습니다. 필묵에 힘이 있고 색채가 농후하며, 그림 전체는 소박하고 간결하지만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는 전서와 예서를 필사하고 진한의 비운을 모방했으며 소박한 행서 전각, 시문 쓰기에 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의 그림에 대한 평을 중심으로 시적 정취와 묵향가득한 그의 작품 세계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선생의 붓과 먹이 지나간 자리에는 꽃과 새, 물고기와 벌레, 산과 물, 그리고 나무들이 마치 그의 손 밑에서 자라난 것처럼 생생하고 변화 무쌍하게 펼쳐진다.

선생은 진정 가슴에 삼라만상을 품고 손끝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다.” - 리커란



“가난은 그를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그림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알게했다.” - 손철주



“문득 낙관용 인장을 삼백 개나 가졌다고 해서 ‘삼백석인부용’ 이라 불리기도 했던 필묵화의 옛대가 제백석이 떠오릅니다. 생전에 그가 유리창 거리에 나타나면 필방의 주인들은 유리문 너머로 알아보고 하던 일을 밀쳐두고 문간에 나와 읊하며 예를 표했다 합니다.” - 김병중



화학생은 전통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백석은 전통에서 배워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임모(臨摹)와 사생(寫生)을 중시했고 그 결과 전통에서 배운 훌륭한 정신에 생생한 현실의 옷을 입힐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매혹시키는 제백석의 큰 힘일 것입니다.

글: 김현경 (한인미협회원)

NKU
LEAP 21

Api
Do it now!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최병우회장

“인도네시아 동포들의 지속적인 호응과 사랑 속에
성장하는 체육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

본지 강희중 편집
인과 인터뷰하는
최병우회장

한인뉴스 편집팀은 2월 26일, KORINDO Building 7층에 있는 PT. ANEKA PANEL INDONESIA를 방문하여, 2016년 2대 재인니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병우회장을 만나 체육회와 그의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Q. 대한 체육회장 관련 질문

1) 재인니대한체육회 경력

체육회 경력은 인도네시아 체육회 결성 이후 2011년 전국체전부터 2015년 96회 강릉 전국체전까지 연속 참석하고 있다.

2) 재인니대한체육회 회장 당선 소감

체육회 창립에 지대한 노력을 하시고 특히 2015년 전국체전에서 전세계 해외 참가 국가 중 3위라는 업적을 이루신 전임 회장과 모든 한인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 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으나, 모두가 힘을 합쳐 힘과 뜻을 모은다면 (一切唯心造)우리 체육회가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3) 재인니체육회 육성 계획

전 인도네시아의 초야에 묻혀 중원으로 나오지 않은 숨은 보석들 찾기에 노력, 발굴하여 금년 97회

전국 체전부터 출전시키고 싶다. 기존 출전자들을 제 협회장들의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한 훈련으로 선수들을 선발하여 출전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

4) 2016년 전국체전 성적목표

이는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나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노력을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협력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Q. 회사관련

1) 회사의 역사

대기업에 근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딘 게 어느덧 강산이 세 번이 변하고 조금 더 지났으니 회사의 역사와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인니에서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주 업종과 생산품 및 매출현황

대기업에서 익힌 해외 공장 건설의 경험을 살린 건설회사인 PT. Multi Konstruksi Utama의 주 업종은 공장 건설이며 선별 수주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이후에 설립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인 PT. Aneka Panel Indonesia의 주 생산품은 단열에 효과가 좋은 샌드위치 판넬공장을 운영하며 세계에서 시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출액은 아이들 학비내기에 무리가 없으며 여유가 되는대로 CSR의 목표대로 대민 봉사할 정도로만 여유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3) 제품의 특징

이미 사용하여 보신 분들이 증명하듯 뛰어난 난연재를 사용한 단열성과 빠른 시공 그리고 화려한 내장효과를 들 수가 있다.

4) 회사의 방침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 가조립을 통한 확인을 걸쳐 빠른 시공으로 고객만족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명감을 방침이며 시공 후에는 Service Car를 항시 대기하여 정기적 순회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5) CSR활동

CSR을 통해 느끼는 기쁨 못지않은 짝한 마음이 있다. 공장 가까이 지은 장애아 교실의 아이들을 볼 때 그렇고, 재난을 당한 마을에 구호품을 전달할 때면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지면을 통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용히 음지에서 더 훌륭히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께 누가 될 것 같기에 이미 아시는 분의 아시는 만큼이며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성금을 4월 초에 완공 예정인 학교 증설 공사에 보태어 쓸 계획이다.

Q. 체육인이나 한인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체력은 국력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여러분의 지속적인 호응과 사랑을 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으신 말씀에 귀를 열고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장학금전달 12세 이후로 광영민사범에게 훈련받은 Dinda Meirisa(2015 전국체전 태권도 PIN급에서 금메달 수상)에게 2016년 2월26일, 학비전액을 후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자리에서 최병우회장은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젊은이답게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고 학생을 격려했다.



3월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이 동균 / 수필가
andersonlee333@gmail.com

어느덧 3월이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우기 계절이 끝나고 건기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온 것이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다. 봄은 사계절이 있는 한국과 같은 온대성기후가 있는 나라에 느낄 수 있는 계절이지만 열대성기후인 인도네시아에도 내 마음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년 12개월 중에 1,2월 달은 새로운 해의 서막으로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몸이 부산하고 예열이 덜 된, 정신적으로는 약간 몽롱하며 피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시작하려면 3월은 되어야 좀더 몸이 민첩하게 되고 두뇌도 회전이 잘 되며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마치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자기의 기량을 100 퍼센트 이상 펼치려면 경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 하는 것과 같다.

필자가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경험하여 느낀 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개 오전 8시부터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대략 오전 10시쯤은 되어야 가장 맑은 정신으로 환자를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곤 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려면 오전 10시쯤에 맞추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이를 몸의 원기 흐름 중에 이 시간대가 기의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무릇 세상의 이치가 삼라만상의 조화라고 하지만 우주의 주체는 분명 사람인 것이다. 세상은 잠으로 빨리 돌아 간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어떤 것이 진실되고 나에게 유익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사람들 대부분은 들고 다니는 다 목적용 컴퓨터와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붓물처럼 터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 그 덕에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세계각지의 소식과 내 주위의 정보를 쉽게 얻는다. 그리고 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멀리 있는 친구 또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다. 작년 9월에 서부 자카르타 토망(Tomang)사무실에서 이곳 찌꾸빠(Cikupa)라는 땅그랑(Tangerang)군의 군청이 있는 곳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겸용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조금은 촌스럽고 가끔은 을씨년스럽고 때로는 목가적이고 한 곳, 땅그랑 찌꾸빠. 울퉁불퉁한 구불구불 나 있는 곰보처럼 생긴 덜 익은 아스팔트 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작은 가게들, 지금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좀 못생긴 열대 과일들, 잔잔한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는 구리 빛 데데한 진솔한 사람 냄새 나는 얼굴들, 좁은 길 주변에 불규칙하게 버려진 빛 바랜 물건들이 나를 과거의 학창시절로 이끌기도 한다.

지금은 내가 벌써 60대 나이의 진입을 얼마 남겨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인생의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점점 몸은 생리학적으로 노화되고 얼마 남았는지 모를 인생의 남은 시간들, 내가 뿌리고 일군 모든 일들이 무언가 결실을 맺을 것 같은 바람들이 나를 희망의 푸른 언덕으로 이끈다. 가끔은 어느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 두신 은사님의 말이 생각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과 군대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교편으로 시작해서 어언 35년간 해 보고 은퇴하여 남은 여생을 좀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특별한 일 없이 소일하며 지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팔십을 훌쩍 넘겨 버렸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 문득 자기자신을 남길 만한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공헌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은사님은 더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본어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시간 교사로 무급으로 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진정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명예가 높고 쓸 돈이 많고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키운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고 내가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은 확신하건대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쓰임을 원할 때” 진정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것 입니다.

즉, 사람이 진정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있다. 나의 조그마한 사무실 앞뜰에는 작년 9월 중순에 심은 어린 야자수가 오후의 서늘한 바람과 마주하며 살랑살랑 춤을 추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먼 훗날, 이 야자수 열매는 이곳을 찾아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도의 낭만을 느끼는 즐거움과 시원함을 안겨 줄 것이며 더위에 지친 그 이방인에게 시원한 한 모금의 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야자수가 많은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희망의 나래를 편다. 어느덧 하늘 저 멀리에 있는 적도의 태양은 내일의 동트는 뜨거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법(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4.6. 민사등기(Catatan Sipil/호적신고) 제도

인도네시아에는 시/군 단위로 민사등기소(Kantor Catatan Sipil)이 있다. 예전에 한국의 시청, 구청, 면사무소의 호적과에서 했던 업무를 맡고 있다.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에 관하여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4.6.1. 출생증서(Akta Kelahiran)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출생신고 구비요건은 출산을 도운 의사, 산파, 선장 혹은 비행기장의 확인서, 동장의 공문, 부모의 결혼증서, 귀화한 부모는 국적취득 증명서, 가족카드, 증인 2명의 증인서이다.

4.6.2. 혼인증서(Akta Perkawinan)

이원화되어 있다. 이슬람 신자의 결혼증서는 종교사무소장(Kepala KUA)이 발급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힌두, 불교 및 유교 신자의 결혼증서는 민사등기소장(Kepala Kantor Catatan Sipil)이 발급한다.

결혼증서에는 결혼일, 년도, 남편의 성명, 부인의 성명, 연령, 종교, 주소 등을 기재한다.

4.6.3. 이혼증서(Akta Perceraian)

이슬람 신자의 이혼증서는 종교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종교법원의 행정관이 발급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힌두, 불교 및 유교 신자의 이혼증서는 민사등기소장(Kepala Kantor Catatan Sipil)이 발급한다.

이혼증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의 일자 및 번호. 이혼하는 부부의 성명, 이혼증서 작성일 등을 기재한다.

4.6.3. 친자확인증서 (Akta Pengakuan dan Pengesahan Anak)

생물학적인 부모가 혼외자를 친자로 등기하는 제도이다. 아이의 출생증서, 친부모의 출생증서 및 법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6.4. 사망증서(Akta Kematian)

사망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구비요건은 동장 혹은 의사의 사망확인서, 혼인증서, 자

녀들의 출생증서 및 증인 2명의 증인서이다. 사망증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사망 일자, 사망 장소 등이 기재된다.

5. 혼인법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은 당사자의 종교 혹은 법적인 신분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전체 국민의 87 퍼센트에 달하는 이슬람신자의 혼인은 이슬람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신자(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에게는 민법이 적용되며,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수 많은 관습사회(Masyarakat Adat)에서는 관습법(Hukum Adat)이 적용되며, 모든 국민에게는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가 적용된다. 한국같은 단일민족사회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혼인에 관한 법률 하나로 전체 국민의 결혼을 규정할 수 있으나, 혈통적으로는 복합민족 내지 복합부족이며 역사적으로는 350년 동안 네델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단일법으로 전체 국민의 혼인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종교에 따라 혹은 당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법을 따르고 있다.

5.1. 혼인에 관한 실정법

5.1.1. 민법전 제1권 제4장 — 제6장

5.1.2.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5.1.3. 종교법원에 관한 법률 1989년 제7호

5.1.4. 혼인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1974년 제9호

5.1.5. 공직자에 대한 혼인허가 및 이혼허가에 관한 정부령 1983년 제10호

5.1.6. 정부령 1983년 제10호 개정에 관한 정부령 1990년 제45호

5.1.7. 이슬람법 적용에 관한 대통령지시 1991년 제1호

5.2. 민법전상의 혼인

5.2.1. 혼인의 적법조건

5.2.1.1. 일부일처 원칙(민법 제27조)

- 5.2.1.2. 결혼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 합의
- 5.2.1.3. 남자는 최소 18세, 여자는 최소 15세
- 5.2.1.4. 이혼 혹은 사별한 여자는 이혼 혹은 사별한 날로부터 최소 300일 경과 후 재혼 가능
- 5.2.1.5.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의 허락
- 5.2.1.6. 양친이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의 허락
- 5.2.1.7. 미성년 혼외자는 부모라고 등기된 부모의 허락
- 5.2.1.8. 미성년 혼외자이나 혼외자로 인정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
- 5.2.1.9. 성년이나 30세 미만인 사람으로 부모가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혼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2.1.10. 민법 제30조 - 33조에 규정된 혼인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3. 혼인 금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하는 혼인을 금한다.

- 5.3.1.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 5.3.2. 부인의 자매, 남편의 형제, 숙부모, 고모, 조카, 손자녀, 조카손자녀
- 5.3.3. 간통 상대방으로 법원으로부터 간통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5.3.4. 이혼 후 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1년 이내 재혼인

5.4. 남편과 부인의 권리 및 의무

- 5.4.1. 부부는 상호 성실해야 하며 서로 도와야한다.
- 5.4.2. 아이를 성실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 5.4.3. 남편이 가장이 된다.
- 5.4.4. 남편은 부인에게 도움을 줘야하는 (memberi bantuan)의 의무가 있다.
- 5.4.5. 남편은 부인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혼인법 발효로 실효)
- 5.4.6. 남편에게 부부 공동재산관리권이 있다(*혼인법 발효로 실효)
- 5.4.7. 남편은 부인의 동의없이 부인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5.4.8.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 5.4.9. 부인은 남편과 동거 의무가 있다.
- 5.4.10. 남편은 부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줘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인이 이혼, 별거 혹은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 5.4.11. 부인은 남편의 동의없이 자의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5.5. 부부의 재산

5.5.1. 부부 재산공동소유 원칙

인도네시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소유이다. 결혼하면서 갖어온 전체 재산은 물론이며 혼인 후 늘어난 모든 재산도 부부공유이며, 남편에게 50%의 권리가 있듯이 부인에게도 50%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산이 부부공동소유이듯이 부채도 부부 공동소유이다.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남편이 파산선고되면 부인도 자동으로 파산선고된다. 사별, 이혼, 남편 실종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법원의 재혼허가 판결 및 별거판결이 나면 부부 공동소유재산은 해지된다.

5.5.2. 부부 재산분할 제도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분할하여 각자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5.5.2.1. 혼인 전 재산분할 관리

혼인 전에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혼인신고 시 동시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호적에 올리면 혼인 후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게 된다. 당연히 채무책임도 남편과 부인 각자에게 있다. 부자들이 사업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부부 재산분할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5.5.2.2. 혼인 후 재산분할 관리

남편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부인은 법원에 재산분할 관리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5.6. 이혼

민법전상 이혼 허용 법정사유는 간통, 고의로 5년 간 별거, 징역 5년 이상 실형 선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폭행 이다.

5.7. 국외혼인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인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은 외국현지 혼인관례에 준하여 혼인하며, 인도네시아 민법전에서 혼인을 금하는 혼인이 아니면 해외혼인은 적법하며,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 거소지 호적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미운 정이 든다는 말이 있다.
미운 정은 ‘오래 사귀는 동안에 서로 뜻이 맞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였으나 그런저런 고비를 모두 잘 넘기고 깊이 든 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은 애정, 인정, 감정 이 있는데 애정은 [kasih sayang], 인정(동정)은 [perasaan simpati], 감정은 [perasaan] 이라고 한다.

마루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봄의 계모 미달이 진정성을 알게 되고 봄 이의 빈자리로 쓸쓸해 할까 봐 모진구박과 욕설을 얻어먹어도 미달을 찾아와 위로한다.

Kau kembali lagi meski sudah kumarahi dan kumaki?

내가 화내고 욕해도 아직도 찾아오니?

욕하다, 욕설하다 라는 뜻으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사용된다.

남을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사용되는 몇몇 대표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maki, cela, kritik, ledek, ejek, hina]

1. **Memaki** = mengucapkan kata-kata keji, tidak pantas, kurang adat untuk menyatakan kemarahan atau kejengkelan (KBBI)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무시하는 말’ 을 ‘입으로 내뱉는 욕설’ 을 뜻한다.

- Dia memaki karyawannya karena tidak becus bekerja.

그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불만족스럽게) 직원에게 욕을 하였다.

☞ Maki-maki-an : ‘갓은 욕설을 내 뱉다.’ 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단어 뒤에 Keras(강한, 단단한) 를 붙여 사용해주면 강한 정도의 세기를 나타내준다.

Memaki keras : 심한욕설을 하다.

2. **Mencela** = mengatakan bahwa ada celanya; mencacat; mengecam; mengkritik; menghina (KBBI) 흠을 찾아서 ‘트집잡고’ ‘비판’ 하고 ‘비평’, ‘비난’ 하는 것을 뜻한다. ‘결함이나 부족함을 찾아서 못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Mencela: menjelek-jelekan seseorang. 어떤사람을 비방하다.

-Bercerminlah sebelum mencela orang lain. 남을 비난(비방)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봐라

3. **Mengkritik** = Mengemukakan kritik (kecaman atau tanggapan, kadang-kadang disertai uraian dan pertimbangan baik buruk terhadap suatu hasil karya, pendapat, dan sebagainya) (KBBI)

‘사실적인 부분’ 과 ‘어떠한 결과’ 에 대한 ‘긍정’ 이나 ‘부정적’ 인 평가(의견) 을 주는 것을 뜻한다.

Mengkritik: memberi tanggapan berupa kebaikan atau keburukan sesuatu.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정이나 긍정의 의견’ 을 주는 것을 뜻함. 일종의 Komenta(평론) 를 뜻함.

-Juri mengkritik penampilan seorang peserta demi kebaikannya.

심판관은 참가자에 대해 그의 공연을 평론 하였다.

4. **Meledak** = mengejek; menghina (KBBI) 남을 ‘희롱’ 하고 ‘놀리는 것’ 을 뜻한다.

Meledak: Mengatakan sesuatu yang membuat orang lain malu.

타인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하는 말을 뜻한다.

-Mereka meledek pasangan pengantin baru itu. 그들은 신혼부부를 놀렸다.

5. **Mengejek** =mengolok-olok (menertawakan, menyindir) untuk menghinakan; (mempermainkan dengan tingkah laku (KBBI) ‘경멸’ 하다 ‘조소’ 하다. ‘비웃다’ 라는 부정의 의미가 강한 ‘희롱’ ‘놀림’ 이라는 뜻을 갖는다.

-Adik dan teman-temannya sering mengejek orang gila di sekitar rumah.

동생과 그의 친구들은 집 근처의 미친 사람을 종종 놀리곤한다. (경멸 괴롭힘. 희롱함)

6. **Menghina** = 1 merendahkan; memandang rendah (hina, tidak penting) 2 memburukkan nama baik orang; menyinggung perasaan orang (seperti memaki-maki, menistakan) (KBBI) ‘모욕’ 하거나 ‘경멸’ 하거나 남들 앞에서 ‘망신’ 을 주거나 ‘무시’ 하거나 ‘업신여김’ 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보잘 것 없는’ ‘천한’ 과 같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Budi menghina tetangganya hanya karena dia bekerja sebagai pemulung.

부디는 이웃집 사람이 고물장수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다. (업신여기다)

☞ ‘무시’ mengabaikan과는 다르게 사용된다. ~을 염두해두지 않아 모른척하는 것을 뜻하며 Hina의 무시는 ‘업신여김’ ‘보잘것 없이 여김’ 을 뜻한다.

-Orang itu mengabaikan kesalahan anaknya. 그는 자식의 잘못을 무시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염두 해 두지 않는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14가지 건강습관

저지방 식단, 걷기, 적당한 수면, 원만한 사회생활 ...

최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돈균 명예교수가 “노화와 산업보건”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외국 의학자들의 연구결과와 각종 문헌을 인용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14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노년기에도 꾸준히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혈당에 주의해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의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역기와 아령을 이용한 운동 기구 운동을 통해 근력과 골밀도를 강화시킨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0~60대 폐경기 여성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일 년 동안 역기와 아령 운동을 한 결과 골밀도가 높아지고 체력이 30대 후반 수준으로 좋아졌다.

2. 걷기

캐나다의 운동노화센터에서는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한다. 이 운동센터는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생리학적 나이를 약 10년 정도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금연

건강과 관련된 영원한 화두는 역시 금연.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따르면 30세 이전에 담배를 끊을 경우 비흡연자와 평균수명이 비슷하다고 한다. 50세에 끊는다고 하더라도 15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흡연자보다 50% 낮아진다고.

4. 다양한 영양분 섭취 다양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섭취한다.

진녹색 야채나 고구마, 요구르트, 콩, 한류성 어류에 이르기까지 주위 곳곳에 숨어 있는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비타민 보충 미네랄이 첨가된 종합비타민은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칼슘과 골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면역반응을 촉진하고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줄이는 비타민E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

6. 저지방 식단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능력과 기억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영양학자인 캐롤 그린우드 박사의 실험결과, 지방이 많은 먹이를 먹은 쥐는 학습능력과 기억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적당한 수면 7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확보한다. 미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자는 사람과 4시간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각각 13%, 17% 높게 나타났다.

8. 꾸준한 두뇌자극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다소 어려운 책을 읽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 활동을 자극하면 노년이 되어도 기민한 정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9. 음악감상, 악기연주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10. 신앙생활

자신의 종교를 갖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약 7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11. 봉사활동

사회노인병학자인 니나 채펠 박사는, 노년기에 사회봉사 등으로 타인들에게 도움 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2. 애완동물 키우기

미국노인병학회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한 기분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3. 긍정적인 사고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원만한 사회생활

토마스 클레스 교수가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1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활동 참여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 못지않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건강의 지침이 되는 책을 찾아보자.

1

밥상의 미래

저자: 조엘 필먼/ 다온북스

마음껏 먹어도 질병 없이 사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며 웰빙을 추구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다시 의료비를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건강 정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과식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유기농 식품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식품 산업계의 눈속임, 면밀하지 못한 연구 결과로 잘못 알려진 영양 정보들을 바로잡아주고 이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6주 식생활 플랜을 제안한다.

저자인 조엘필먼은 의대에 들어가기 전,1973년에는 미국 챔피언십에서 2등에 오르는 등 아이스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고, 당시에 주치의로부터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단식으로 자신의 부상을 치유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76년에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땀다. 이를 계기로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필라델피아 의과 대학에 입학했으며, 의대에서 영양과 자연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다. 그 후 프로페셔널 스포츠 의학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돌봤다. 필먼 박사는 인류의 영양 섭취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인간의 배고픔과 음식 중독에 대한 그의 발견은 여러 과학 학술지와 영양학 저널에 소개되었다.

2

오일 풀링

하루 한번 가글링으로 온몸의 독소가 빠진다

저자:브루스 피페/ 새로운 현재

3일이면 입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식물성 오일로 입을 행귀 입안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요법, 오일 풀링 안내서. 오일 풀링은 간

4

1



2



3



단하지만, 칫솔질로도 제거할 수 없었던 세균까지 없애줄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세균과 독소를 방어하느라 약해졌던 면역력을 키워 주면서 항생제와 약물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웠던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피부병 같은 난치병을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체의학 전문의인 저자는 2,700년 전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부터 10세기 감염 이론에 이르기까지 오일 풀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강 건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일 풀링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올바른 오일 풀링 방법은 무엇인지, 오일 풀링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낱낱이 밝힌다. 애초에 이런 대체요법을 믿지 않았던 의사가 실체를 밝히고자 시작했던 연구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지병을 고치면서 더더욱 연구에 빠져 들었고, 결국 의학적 근거와 논리를 찾아낸 흥미진진한 여정이 담겨 있다.

3

코코넛오일 비밀 레시피

저자 스시마 루리코, 시바타 마키,
이치노 사오리/성안당

요리부터 뷰티까지, 이제는 코코넛오일이다. 마실수록, 바를수록 기적에 가까운 효과! 코코넛오일로 반짝이는 생활을 하자! 남쪽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자수 나무’, 그 중 코코넛과 나무의 다 자란 열매에서 채취한 것이 바로 요즘 대세인 ‘코코넛오일’이다. 특히 신선한 코코넛을 압축한 ‘버진 코코넛오일’은 미국과 일본에서 헬스와 뷰티, 다이어트와 함께 치매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은 어떤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여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고, 바르고,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 코코넛 오일 그 자체가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STEP 1 - 코코넛오일로 몸속부터 예뻐지기!
코코넛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중쇄지방산(중사슬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코코넛오일의 중쇄지방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기초 대사율을 높여 주고, 지방

을 산화시켜 체중 감량을 촉진한다. 또한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며, 체내에 쌓인 독을 빼주는 디톡스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쇄지방산이 함유된 식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코코넛오일이다.

STEP 2 - 코코넛오일, 맛있게 먹자!

부드러운 촉감과 달콤한 코코넛오일은 그 자체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의 특징을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일상 요리에 활용하면 한순간에 맛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다.

STEP 3 - 초간단 스킨케어, 반짝이는 피부를! 코코넛오일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로 발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며 보온 효과, 피부 재생, 자외선 차단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마법 같은 오일이다.

4

디스크 권하는 사회

호갱 환자가 안 되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저자: 황윤권/ 에이미팩토리

모두 조금씩 아픈 곳과 그 이유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패턴 등에 따라 동작이나 운동법 등 처방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듯 천편일률적으로 X-RAY, MRI 찍고 선고 내리듯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판정하는 병원들. 『디스크 권하는 사회』는 저자 황윤권 전문의가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질병은 ‘없는 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와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낸 책이다.

저자 황윤권은 병원과의 견해 차이도 있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1991년 그는 개업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년 만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결국 병원을 접고 만다. 관절염, 근육통, 오십견, 허리 통증, 테니스 엘보 등등 다양하고도 만성적인 증세를 명쾌히 치료하지는 못하면서 통증만 없애주는 데 급급한 매일 매일이었다. 그는 다시 종합병원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평범한 외래환자들을 주로 맡았다. 그리고 이 책의 기초가 되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세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법’의 바탕을 쌓았다.

알고 갑시다

♣ Tip 글쓰는 방법

▷ 철자의 기울임

a. 기울임체는 책 또는 잡지, 신문의 제목(이름) 를 표기할 때 사용한다.

Contoh:

majalah *Bahasa dan Sastra*,
buku *Negarakertagama* karangan *Prapanca*,
surat kabar *Suara Rakyat*.

b. 단어나 숙어를 강조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Contoh:

Huruf pertama kata *abad* adalah *a*.
Dia bukan *menipu*, tapi *ditipu*.
Bab ini *tidak* membicarakan penulisan huruf kapital.
Buatlah kalimat dengan *berlepas tangan*.

c. 학문이나 외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한다. 단 이미 차용어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Contoh:

Nama ilmiah buah manggis ialah *Carcinia mangostama*.
Politik *divide et impera* pernah merajalela di negeri ini.
Weltanschauung diterjemahkan menjadi ‘pandangan dunia’ .

▷ 접두사로서의 di, ke, dan dari

이미 관용적으로 한 단어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di, ke, dan dari 는 뒤에 위치하는 단어와 붙여 사용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Contoh:

Kain itu terletak *di* dalam lemari.
Bermalam sajalah *di* sini.
Di mana Siti sekarang?
Mereka ada *di* rumah.
Ia ikut terjun *di* tengah kancah perjuangan.
Ke mana saja ia selama ini?
Kita perlu berpikir sepuluh tahun *ke* depan.
Mari kita berangkat *ke* pasar.
Saya pergi *ke* sana-sini mencarinya.
Ia datang *dari* Surabaya kemarin.

글: 허영순 <OKTN>



(2016.2)

기업명	PT. INNOMATE	PT. YCH INDONESIA	PT. LOCKNLOCK INDONESIA
업종	인테리어(건설)	물류	유통
구인직종	1. 시공감리 및 현장관리 2. 전략 기획 3. 디자인, 설계 4. 영업, 마 케팅	영업 관리	영업
근무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 지원방법** (#1 & #2 모두 필수)

#1. 월드잡(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로그인후 왼쪽 상단 “마이페이지” 새 이력서 작성 클릭 --> 국/영문 이력서 작성 (Step 1~5 완료) --> 해외채용정보에서 모집건 클릭 --> 해당 상호명으로 검색 후 지원하기

#2. 이메일 접수 필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혜정 대리 hjshin@kotra.or.kr - 이메일로 접수 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행하셔야 지원이 완료됩니다.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 수시채용/구인기업상호명/지원직종/지원자성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코트라 지정양식 이용 : <http://cafe.naver.com/kotrajakarta1> 의 구인정보/취업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전화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이메일 접수 필수

※ 본 공고와 관련한 추후 면접진행 및 채용과정, 당사자간 합의 및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KOTRA가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글로벌 취업상담회 참가 안내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19일부터 20일 양일간 서울 COEX에서 해외취업
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해외 구인기업이 만나는 ‘글로벌 취업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취업상담회에는 약 2,000여명의 구직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구인기업은
총 100개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채용계획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께서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는 이
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행사 명칭 : 2016 상반기 글로벌취업상담회 (Seoul Career Vision 2016)
- 일시/장소 : 2016. 5.19(목) ~ 5.20(금) / 서울 COEX 신관3층 D2홀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 KOTRA · 한국산업인력공단
- 참가규모 : 전 세계 유망기업 100개사 내외, 구직자 2,000명
- 행사구성 : 구인처-구직자간 1:1 채용상담회, 해외취업설명회 등
 - ※ 세부 프로그램은 참가신청시 추후 통보예정

참가신청 : 2016.3.31(한국시간 오후 6시 기준)

※ 신청양식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무역관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 작성 후 무역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2. 초청기업 모집 및 지원

- 모집절차 : 신청서 제출 → 구직자 면담신청 → 초청기업 확정
 - ※ 구인기업이 올린 공고건에 대해 구직자 면담신청이 15건 이상 인 기업에 한해 초청

※ 참가업체는 5월 19일 ~ 20일 전일 의무참가

- 초청기업 지원 (1개사당 1명만 지원, 추가인원은 업체 자비부담)
 - 상담부스 무료 제공 (1개사 1부스)
 -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 3박 싱글 1실
 - 이코노미 기준 왕복항공운임 USD 500 정액 지급

3. 신청 및 문의처

- 담당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해외취업담당
e-mail : hjshin@kotra.or.kr / ☎ 021-5790-5230
- 신청서 송부 : 상기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요망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2016년 안인희 임원잔조금 명단

2016년 2월2일-3월1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2	한인회 명예회원	Achmad Baiquni	PT. BANK NEGARA INDONESIA	2016		135,000,000
3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SWANA PERKASA	2016	1,000	
4	한인회 이사	길 병 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16	1,000	
5	한인회 회장	양 영 연	PT. TAEWON INDONESIA	2016		269,420,000
6	한인회 부회장	장 근 원	PT. TRIPILLAR MEDIS JAYA	2016		67,000,000
총 금액					US\$2,000	Rp471,420,000

2016년 안인희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6년 2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41	박 화 선	2016	300,000
42	손 순 략	2016	300,000
43	김 형 석	2016	300,000
44	신 기 엽	2016	300,000
45	윤 예 슬	2016	300,000
46	강 호 성	2016	300,000
47	김 종 회	2016	300,000
48	김 주 철	2016	300,000
49	김 준 규	2016	300,000
50	박 재 한	2016	300,000
51	배 응 식	2016	300,000
52	손 한 평	2016	300,000
53	안 윤 근	2016	300,000
54	엄 정 호	2016	300,000
55	이 지 현	2016	300,000
56	이 화 수	2016	300,000
57	장 근 원	2016	300,000
58	조 현 보	2016	300,000
59	최 광 수	2016	300,000
60	최 덕 열	2016	300,000
61	홍 춘 식	2016	300,000
62	황 의 상	2016	300,000
63	송 목 근	2016	300,000
64	송 재 규	2016	300,000
65	오 세 윤	2016	300,000
66	이 기 철	2016	300,000
총 금액			Rp19,8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통역봉사자(안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석양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아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	-------------

건설 증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팔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불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직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오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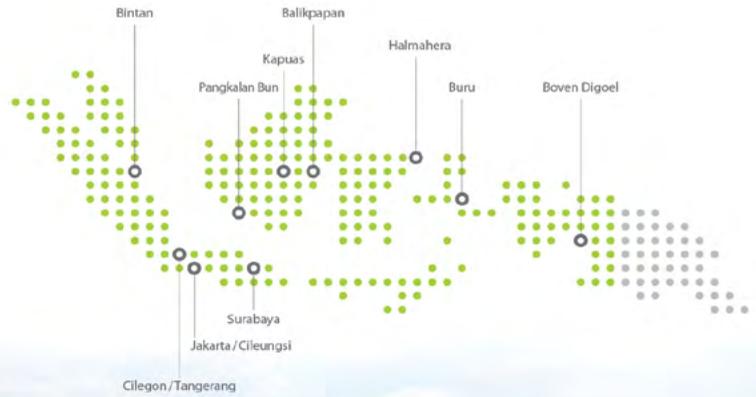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Total Interior Design Company

14F SME 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 7919. 2006(Rep) Email pt.innomate@gmail.com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